朝鮮日報
二日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林景來
印刷人 朴昌根
京城府堅志洞 朝鮮日報社
代表電話光(二)三〇〇番
振替口座京城五八七八番

時評

# 元氣振作의 新一年 ―社會各層에 高調―

一

이해의 表象인 끗업시 만흔 새벽의 樂園들의 大地에 벅찬 무르지즘에 오늘도 變함업시 빗나는 太陽은 새롭은 봄볏을 자랑하고잇다 元日의 麻蘇氣分도 文化의 進步를 따러 또는 二重過歲의 因襲打破소래의 覺醒的 高調의 趨勢와 한가지로 漸次 朝鮮人社會에도 濃厚하야 진것이 事實인듯 자못 新春第一日의 街頭風景의 明朗함을 볼수 잇섯스며 年賀의 書狀七百萬通이 大京城에 集散되어 昨年에 比하야 授受와 配達이 다 함쎄 激增하얏스니 이것들은 活潑한 現象의 하나이 아니라

二

明朗한 風景 活潑한 現象은 健康한 精力의 所産이어야한다 陰險, 暗澹, 靜寂한 風景과 鬱伏, 卑屈, 疲弊의 現象은 明朗活潑의 敵手이요 元氣와 精力의 敗北者가 아닌가 强大한 農村의 疲弊相과 數十萬으로 算하는 失業群의 彷徨으로 暗膽鬱伏 苦惱의 色彩中에서 밝어진 一九三三年의 風景이 活潑하고 明朗하다는 것은 그 무슨 理由가 잇슬가 意識의 元氣의 振作에 由因함인가 或은 一時的 人爲的 이른바 『인플레』景氣의 假作인것이 事實인가 그러나 그것을 如何間에 우리는 다만 이러한 風景과 事實을 感覺함으로써 깃븜을 삼자 그리고 그것이 眞正한 것뿐이 아닐진대 그것을 確實한 것으로 만들기를 努力하자

三

지나간 一九三二年은 新年劈頭부터 開島에 檄文事件 鎭南浦에 精米工罷業 釜山에 檄文事件 等의 緊張과 이에 따르는 警察의 檢索旋風等으로 말미암아 緊張하고 彈力잇는 雰圍氣가 이 版圖안에 充滿하얏섯스나 今年의 新春엔 南北에 異常이 업스니 이 平穩無事는 鬱伏과 衰弱을 意味하는 것이어늘 元氣와 精力의 所産이어야 할 明朗한 風景의 展開와 活氣잇는 動作이 잇다 함은 그 錯覺에 지나지 아니한 바가 아니냐 하는 質問도 存在할수잇다 그러나 그것은 機械的 論理에 不過하다 無事함이 반듯이 衰弱에서만 産出되는 現象이 아닌바에 그 假定은 眞理로 될수업나 그러면 무엇이 그 代身 眞理로서 存立할수잇는가? 가로대 客觀的 自然的 存在는 主觀的 意識的 努力을 要求하는 바이오 그들은 서로 不可分의 關係에 잇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意識的으로 努力하야 元氣를 振作하는 것이 우리의 周圍를 繼續하고 잇는 陰酸과 鬱伏 暗膽과 卑屈 靜寂과 疲弊의 모든 條件을 破壞하고서 明朗한 新生에 살수 잇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四

事物의 客觀的 現象은 社會諸關係의 正常的 發展의 過程을 表現하는 反面에 或은 非正常的 反動의 表現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는 左右不分明의 朦朧한 現象도 볼수도 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나타난 存在에 對하야는 識辨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오 分析과 批判은 一定한 期間 形態의 進展에 依하야 서 할 일이다 新春의 봄다운 氣分과 街頭의 明朗한 往來人의 風景과 活氣잇는 交歡은 비록 그것이 社會의 一局部에서 顯著한 傾向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傾向을 利用 轉化 合作함에 잇서 社會全體의 雰圍氣를 左右할수 잇는 潮流로 만들수 잇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經濟的 非常한 困窮과 政治的 反動의 全世界的 滔滔한 濁流中에서 한 해를 보내고 新一年을 마지하면서 意識的으로 明朗한 氣分을 갓고 活潑한 元氣를 振作하려하는 努力이 잇다는 것은 잇슬수 잇는 일일뿐 아니라 또 한 나아가서는 그 努力을 强調할 必要도 잇는 일이다 無事함이 반듯이 衰弱의 原因됨이 아니오 明朗함이 반듯이 壓迫의 原因됨이 아님을 記憶하면서 全民衆 各層各階級의 總卅的 元氣振作의 新一年을 高調하는 바이다

# 歐米列强의 對立과 戰債賠償問題 (二)

## ―天文學的 數字의 變遷과 그 本質―

李鍾洙

### 賠償의 標準

世界大戰이 끗나고 平和條約이 締結될 때에 그 根本原則에 依하야 두가지 主張이 잇섯스니 其一은 無賠償無懲罰主義 其二는 그 反對다 前者는 露國側의 『레―닌』의 『無賠償無懲罰主義 十四個條의 原則』을 議會에서 宣言한 當時의 米國大統領 『윌슨』氏가 代表하고 後者는 佛蘭西가 盟主가 되엇다 그 結果는? 佛蘭西側의 主張대로 殘忍한 懲罰主義를 採用하야 벨사이유 條約은 前述한 바와 갓치 獨逸의 가장 發達한 工業地帶를 剝奪하고 植民地와 모든 特殊權益을 掠取하고 그리고 武裝을 完全히 解除하고 그리고

(1) 戰爭時에 生한 모든 損害에 對하야 補償의 義務를 賦課할 것 卽 賠償金支拂義務를 지게 할 것

(2) 一定한 要求及義務를 履行치 안흘 때에는 武力으로써 强制執行을 行할 것

을 決定하얏다

### 賠償의 範疇

賠償主義懲罰主義의 根本原則이 決定된 後 第二段의 問題는 各國의 賠償政策이엇다 卽 米國은 賠償範疇에 關해서 『戰爭에 直接關與하지 안흔 普通人民의 生命財産의 損害의 賠償』만을 主張한데 反하야 英佛特히 佛蘭西는 『戰爭의 責任은 獨逸에 잇다』는 鐵則으로 『獨逸로 하야금 戰爭에 對하야 모든 損害賠償을 支拂케 하라』고 하엿다 이 主張에 잇서서 各國의 利害關係는 各自相異하나 그들이 獨逸帝國主義를 再興하지 못하도록 抑壓함에 잇서서는 利害가 共通되엿나니 結局 勝戰列强은 平和條約第八編에서 賠償金支拂問題를 規定하야 『獨逸은 交戰期間中陸上海上及空中攻擊으로 同盟及聯合國의 普通人民及 그 財産에 對하야 加한 一切의 損害에 對하야 賠償하여야 된다』는 것을 第二百三十二條第二項에 規定하고 聯合國政府가 바든 損害는 特히 免除하지마는 『從軍軍人及 그家族에 對한 恩給』을 賠償할것이라는 項目을 添加하엿다

### 巴里會議

그러면 그 總額은 얼마나되는가? 그 支拂期限은? 戰勝國의 賠償金分配率은? 이러한 具體的 問題는 다시 賠償委員會에서 決定하기로 하야 第二百三十三條는 『委員會는 總額을 決定하고 一九二一年五月一日 以後三十年의 期間內에 獨逸이 右債務全部를 辨償할 時期及方法을 定하는 支拂一覽表를 調製할것』을 規定하엿다 聯合國側은 이 規定에 依하야 一九一九年一月 賠償委員會를 開催하고 賠償委員會가 何等의 成績을 엇지 못하자 다시 一九二〇年六月에 政治家會議를 開催하야 勿驚二六九〇億金馬克이라는 엄청난 數字를 案出하엿다 그러나 이러한 無理한 數字가 通할 理는 업섯다 聯合國側은 할수업시 一九二一年一月에 다시 巴里會議를 開催하고

(1, 賠償總額 二千二百六十億馬克, (2) 年限 四十二個年間 (3) 年賦의 額은 一割二分의 支拂할것

等을 決定하야 이번에는 强制的으로 獨逸의 承諾을 要求하고 獨逸이 不諾하자 聯盟規約에 依하야 斷然同年三月에 『라인』左岸의 잇는 『듀셀도르프』『뒤이스부르그』『루―르』를 占領하엿다

### 倫敦協定案

그러나 이 武力的 威脅는 獨逸의 窮乏을 더하고 歐洲經濟界에 不調를 招來하는 以外의 아무 効果도 업섯나니 聯盟國은 一九二一年四月 賠償委員會를 倫敦에 開하고 『倫敦協定案』을 作成하야 强制的으로 獨逸의 承諾을 要求하얏다 獨逸은 아무 反抗하지 不占領의 威嚇下에 할수업시 이것을 承認하엿스니 그 內容은

一、賠償金總額 一、三二〇億金馬克

二、支拂方法

1 第一種公債 五分利附額面 一二〇億金馬克으로 이것은 一九二一年五月에 發行하야 聯合國側에 引渡할것

2 第二種公債 五分利附三億金馬克 一九二一年十一月에 發行할것

3 第三種公債 五分利附八二〇億金馬克 이것은 獨逸의 事情에 應하야 將來發行할것

그리고 右公債의 支拂方法에 對해서는

1、每年二十億金馬克을 現金으로 賠償委員會에 支拂할것

2、年輸出總額의 二割五分에 相當한 金額을 支拂할것

3、年輸出總額의 一分의 相當한 金額을 將來發行할 第三種公債利子의 積立金으로 支拂할것

### 各國分配率

여긔서 規定한 一、三二〇億金馬克이 世稱天文學的 數字라는 것이니 이것을 分配하기 爲하야 聯合國側은 同月『스파』會議八 開催하고 如左히 分配率을 決定하다

佛蘭西 五二%　英 二二%
伊太利 一〇%　白耳義 八%
日本 〇、七五　葡萄牙 〇、七五
其他 六、五%

이 天文學的 數字의 無理한 것은 [illegible] 認定하엿든 바이나 果然 獨逸은 一九二一年八月에 [illegible] 第一回分十億金馬克 十二月에 [illegible] 第一回分三億金馬克 都合十三億金馬克을 支拂하고는 以後는 支拂이 困難하다는 뜻으로 委員會에 提出하엿다 委員會는 熟議를 거듭한 結果 一九二二年三月二十一日에 이르러 一九二二年支拂額 七億二千萬馬克을 作定하야 獨逸에 通告하엿다

### 列國對立關係

獨逸은 이 遷延을 諒하지 안흘수업섯나니 그것은 佛蘭西가 機會만 잇으면 『룰』地方을 占領하야 獨逸帝國主義는 다시 이러나지 못하게 하려는 根本的 鐵則을 가지고 잇섯기 때문이니 獨逸의 復興은 佛蘭西에 對하야 直接的 脅威를 주는 外닭이다 이에 反하야 英國은 獨逸賠償金을 아니라 世界經濟를 爲하야 聯盟國에 對한 債務償還要求 外지라도 拋棄할 用意를 보이고 잇섯다 여기에 英佛 英米의 對立을 如實히 볼수 잇으나 英國은 米國의 戰債償還을 要求하는 限 獨逸의 賠償을 放棄지 안아도 아무 物質的 損失을 보지 안흘 뿐 아니라 도리어 그 利해케 함으로 米佛帝國主義의 對歐政策에 모니의 擴大를 制御할 수 잇는 것이엇다

### 『룰』地方占領

이러한 內的對立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賠償委員會는 佛蘭西에게 『룰』占領의 口實을 주엇다 卽 佛國人이 議長이 되어잇는 同委員會가 『獨逸이 木材의 引渡及 石炭의 引渡를 故意로 안하고 잇다』고 宣言하자 佛國은 기다리고 잇든듯이 『實物賠償을 規定대로 遂行치 안으면 獨逸을 制裁할 수 잇다』는 條約文을 看板으로 獨逸의 違反監視委員을 『룰』地方에 派遣하고 이것을 保護한다는 口實밋헤 一九二三年一月十一日 드듸어 白義耳와 가티 軍隊를 出動시켜 『룰』地方을 占領하엿다 이 때하엿나 佛蘭西의 本來의 計劃은 成功하엿나 『룰』占領은 그러나 同時에 不成功하고 [illegible] 層激化하고 따러서 支拂을 困難 [illegible] 乳牛業者의 食慾、牛乳만 食하다가 乳牛를 餓死케 한 愚를 본다 (續載)

◇ 八面續

◇ 聯盟中心을 操하고、各國과 個別交涉코자함이、東京政府의 新年外交方針。

# 朝鮮史上癸酉年 (三)

◇……駱山生……◇

### 大君依護

문뒤에 온陽汀 大君은 忽忽이 入城하야 親信壯士로 城門을 把守케하고 곳 行在所 鄕校洞寧陽尉邸로 들어가 入直承旨崔恒을 불러서 金宗瑞 죽인 사연을 말외라하고 또 皇甫仁 金宗瑞 李穰 閔伸 趙克寬 尹處恭 李命敏 元矩 趙藩等이 咸吉道節制使 李澄玉 鍾城府使 李耕時 平安道觀察使 趙遂良 忠淸道觀察使 安景完等을 連結하야 가지고 社稷을 위태케하라고 꾀하는것을 알고 賊魁宗瑞는 먼저 죽엿고 그 黨은 處分을 물어 治罪하노라하고 그 黨類中에 엿인 內官 金衍 韓崇은 方今 上監을 뫼시고 잇스니 그것들을 마저 治罪하도록 알외라고 하얏다 崔恒이 大君을 마저 드려 王에로 引導하야 들어가니 端宗이 그 때 十二歲 冲齡이라 치재 말슴이 叔父는 나를 살려달라는 것을 大君이 어렵지 안습니다 臣이 處置하오리다 대답하고 곳 軍士로 三重門을 만들고 韓明澮는 시켜 生殺簿를 가지고 門內에 안게 한 後

### 滿朝卿宰相

을 牌招하야 드리는데 첫 門에서 下人들을 떼치고 單身으로 들어오게 하고 洪允成, 咸秀等 壯士를 시켜서 別음이 殺簿에 올은 사람을 椎殺하게 하얏다 金宗瑞는 그날 밤에 죽지 안흔 것을 이튼날 새벽에 다시 사람을 보내어 칼로 쳐서 죽이엿다 安平大君도 罪人의 黨으로 몰아서 처음에 江華에 安置하게 되엇는데 날 뒤에 百官을 거느리고 請하야 그리하고 곳 死藥을 나리게 되엇다 靖難功臣을 錄하얏는데 功臣은 卽首陽大君 鄭麟趾等 三十六人이엇다

◇……◇

### 金宗瑞가

李澄玉은 武勇이 絶人하고 威名이 內外에 떨치든 北邊良將이니 世宗때 金宗瑞가 咸吉道都節制使로 잇서 鍾城, 會寧, 慶源, 慶興, 穩城等 五鎭을 設置할 때 金宗瑞가 李澄玉을 밀어주고 李澄玉이 金宗瑞에게 感服되어서 서로 相得하얏는데 金宗瑞가 乞還할 때 世宗이 그 代를 어렵게 녀기어서 누가 能히 卿을 代할만 하냐 하고 宗瑞에게 下問하니 宗瑞가 곳 澄玉을 薦擧하야 이에 澄玉이 咸吉道都節制使가 되엇섯다 이 때에 首陽大君이 金宗瑞等을 다 죽이고 곳 朴好問을 驛騎로 疾馳하야 가서 李澄玉의 都節制職任을 대신하고 李澄玉을 불러 還朝케하얏더니 李澄玉이 朝命을 바더서 朴好問과 交代하고도 의심이 나서 하는 말이 節制는 重任인데 先聲업시 와서 交代함은 무슨 까닭이며 또 朝廷에 大事가 업스면 나를 불은 시인는다 하얏는데 자금줄 디에나의 벼슬을 가니 이것은 반드시 사판 곳 아잇다 하고 朝間을 죽이고 또 瑞馬를 거느리고 서울로 向하라 가고만 두고 自立하야 大金皇帝가 되어서 豆滿江을 건너가라고 鍾城에와서 묵는데 鄭種이란 사람에게 殺害되엇다 이것은 대개 五山說林에 記錄된 것을 참작하야 적은 것이요 李澄玉 暗殺한 사람은 判官 鄭種이라도 하고

### 府使鄭種

이라도 하야 二說이 다 各各 出處가 잇스나 여기 鄭種으로 쓴 것은 浴溪記聞을 조친 것이다

英祖二十九年 癸酉에 全國戶口를 調査하니 戶數가 百七十七萬二千七百餘요 人口數가 七百三十九萬八千七百餘이엇다 光武十年十一月에 調査한 人口數가 九百七十八萬餘인데 從來 五百餘萬 밧게 아니 되든 것이 調査한 結果 늘엇다고 하얏스니 從來 五百餘萬이란 數는 말할 것도 업고 以後 一百五十四年間에 增加數가 二百四十八萬餘이니 一年에 겨우 一萬六千餘人 밧게 늘지 못한 셈이라 光武十年 以後에는 每年에 대개 三十萬乃至七十萬式 느는 人口가 달은 條件도 별로업지 마는 設或 千百가지 달은 條件이 잇다손 잡더라도 이러케 懸殊하게 곳되라 가업다 이것은 確實히 調査가 미덥지 못한 것을 證明하는 외에 달은 것이 업다 英祖때 調査가 正確하다는 것은 아니되 大數에 틀림이 업는 것은 미들만한 點이 잇스니

### 光武十年 (一九〇六年)

九百七十八萬으로부터 一九〇九年 一千三百十二萬과 一九一七年 一千六百六十一萬과 一九二八年 一千八百六十萬과 一九三〇年 國勢調査 確定數 一千九百六十八萬에 니르기 까지의 人口增加率은 生産增加率로 보담 單純한 調査上 增加率로 보는 것이 妥當한 것이다 中國으로 말하면 우리 英祖와 同時인 乾隆때 調査한 人口가 四億餘萬인데 오늘날 外지도 中國人은 대개 四億萬 同胞라고 稱하고 조금 참작하야 말하자면 四億三千萬이니 四千萬이 나 하고 參考로 一七〇〇年頃 歐洲諸國 人口의 大多數를 列擧하면 대개 아래 가트니 佛國 二千萬 獨逸 二千二百萬 露國 一千二百萬 伊太利 一千萬 英國八百萬 西班牙葡萄牙合八百萬 波蘭六百萬 土耳其及布牙利四百萬 和蘭白耳義四百萬 瑞典芬蘭四百萬

### 丁抹諾威

三百萬이엇는데 佛國은 人口만 三倍가 로 有名한 나라지만 그동안 二倍넘어 늘어서 지금 四千一百萬이되고 英國은 갑작이 늘어서 四千四百萬인데 蘇格蘭 二百八十萬 外지 合하면 五倍넘어 늘은셈이고 露國은 歐細亞地方人口 外지 더하면 一億四千七百萬이나 되니 이것은 單純이 늘엇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獨 六千三百萬에 墺 六百五十萬을 合하면 三倍넘어 늘엇고 伊太利는 統一國家되고 殖民地 外지 가지게 된 까닭으로 四千一百萬으로 四倍넘게 늘엇고 西二千二百萬에 葡六百萬도 合하면 三倍가 이나 늘엇스나 이것도 單純한 것은 아니고 波蘭은 나라가 亡햇다 興햇다 하는 동에 人口가 단지 三十九萬이 利가 부러서 二千七百萬이 되고 土耳其 一千三百萬 希臘 六百二十萬 和蘭七百七十萬 白耳義 七百九十萬 匈牙利 七百九十萬 瑞典六百十萬 芬蘭三百六十萬 丁抹三百四十萬

### 諾威二百

六十萬 모두가 늘엇다 匈牙利나 만케 하고는 二倍 三倍식 늘엇다 우리 人口도 그동안 不完全한 調査 보영재 조념든 것은 밤말고 이 癸酉年 調査數 보담 三倍 갓가히 늘은 모양이다 우리 全人口에 對한 農業人口의 比例는 露國革命直前이나, 또는 佛國革命直前과 近似하니 露國革命直前에는 全人口 一億四千二百萬餘 中에 農民이 一億一千五百萬이엇고 佛國革命直前에는 全人口 二千六百萬餘 中에 農民이 二千一百萬餘이엇다 純祖十三年 癸酉에 濟州에 叛亂을 圖하는 자가 잇섯스나 곳 업시 鎭定되엇다 이 癸酉年 (곳 洪景來亂이 平定된 壬申翌年) 이다 이라고 할 洪景來가 前二年辛未에 旭川서 起兵하야 嘉山郡守 鄭蓍를 죽이고 翌年에 宣川府使 金益淳을 降伏 바더 軍勢이 떨치어서 關西一帶는 勿論이요 거의 全國이 震動하얏는데 巡撫使 李堯憲이 大軍으로 와서 景來를 定州城에 가두고 城을 陷落식히고 亂을 平定하얏다

### 濟州는 朝

鮮의 夜郞으로 自立하야 高麗朝에서도 星主를 가지든 곳이라 自立하든 녯날을 追憶하는 사람이 업지 안흔데다가 이 때 洪景來의 風聲을 듯고 녯날에 나는 자들이 잇서서 濟州自立을 圖謀하다가 成事할 사이업시 잡히어 죽은 것이엇다

高宗十年 癸酉에 大院君을 人老로 尊奉하얏다 처음에 大院君이 府夫人 本族에서 府院君이 업는 王妃를 揀擇케 함은 自己執政에 기리오게 할 것을 圖謀한 것은 事實인데 엇지 알엇스랴 明成皇后가 곳 對手가 되어서 大院君의 十年 勢道를 이해에 돌려 버리게 되엇다 勢道가 閔氏에게로 돌아 『이 사람의 勢道다 저 사람의 勢道다』 하야 나종에는 一二三四의 番號外지 부치어 말들 하얏시만 그들은 또 各 勢道이나 진날 勢道들이 말러 中殿德 指揮下에서 勢道를 할만한 外닭이다 또 各勢道이 벌치는 통에 [illegible] 閔政의 最大現象이 나라나고 大國請兵과 가튼 極東風雲의 一大原因이 생기게 되엇다 이 여 大院君 [illegible] 한 것은 儒生 李恒老의 上疏로 조친 것이나 實相은 [illegible]

### 雲峴宮門

前에 兵이 [illegible] 는 발을 박어서 大院君의 出入을 조케 隣因하는 것과 同一한 手段이다

# 林巨正傳 (26)

洪命憙 作　安碩柱 畫

박유복 (二의十五)

유복이가 리가집에서 떠나 나오는길로 곳 현왕동이와 작별하고 한다리서 엄한으로 십나리로 물장승으로 왹백오십리 해주와서 자고 이튿날 엿던人들을 시나고 쇠리를 넘어서 강령 뒤심리를 정심사이에 오물어와 유복이가 고향이라고 발드려 노키가 이번이 생외 처음이라 산도설고 물도 설기가 타도 타관이나 말씀이 업스나 낫의은 사람이 잇슬 까닭이 업다 원수 보가의 종적을 누구를 보고 물어야 할지 몰라서 공연히 이리 거리 지싯거리고 다니다가 장터 한바퀴를 다돌고 나서 어느 로인 하나가 질행이를 질고 멀처이 오는 것을 보고 을 치켜들은 이더러 나 종 물어보겟다 낫살 먹은 사람이면 넷일도 몰으지 안흐런니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로인이 꼴은걸로 오지 안코 어느집 모퉁이에서 사이골목으로 석기는 것을 보고 유복이가

『여보시요 여보시요』

하고소리를 질르며 손짓하앗다 그로인이 처음에는 고개만 돌리고 두리번거리다가 유복이의 손짓이 자긔보고 하는 것인줄을 알고 그제야 돌아서서 질행이를 짓고 섯다 유복이가 갓가이 와서 두손을 길음마주잡고 허리를 굽히니 그로인이 물쇠리 유복이를 보면서

『누구인지 나는 몰으겟는데』

하고 괴상히 녀기는 빛을 얼굴에 나타내엇다

『잠간 엿주어볼 말슴이 잇습니다』

『무슨 말인고』

『이 읍내에 로가성가진 사람이 살읍니가?』

『로가성가진 사람?』

『네』

『로가성가진 사람이 하나둘일가 나버렴 로가인걸』

유복이가 그로인이 로가란 말을 듯고는 이 늙은 것이 원수로가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야 그로인의 아래우를 훌터보앗다

『로가성가진사람을 엇지해서 찻는고』 하고 그로인이 뭇는데 유복이는 서뭇 대답할 말이 업서서 말똥말똥 그로인의 얼굴만 반드러다보앗다

『괴상한 사람이로군』

『찻는 사람이 잇소이다』

『대체 허구만흔 로가에 누구를 찻는거야』

『아들반코 손자만흔 사람을 찻습니다』

『아들손자만흔 사람? 나두 아들이 삼형제에 손자가 팔종형제나 되는걸』

유복이는 이자가 정말 원수인가보냐 하고 의심이 벗석 들엇다

『당신 서울가보신일 잇소』

『못가보앗서』

『젊어서 아번두 못가보앗단 말슴이오』

『허허 시골 사람이 서울구경하기가 어듸 쉬운가 볼도업시 구경하려 사뻬팔십리길 업누들 넘수가 잇서야지』

유복이가 당치안케 헛의심을 낸줄로 짐작하얏스나 그래도 미심하야서 더 말을 뭇엇다

『강령서 나섯는가요』

『아니 내가 웅진서 이리이사온지가 한이십년밧게 아니되엇서』

『네 웅진사시다 오셧서요? 그리면 나시기도 웅진서 나섯겟구면이요』

『그래 웅진이 내고향이야』

유복이가 그제는 그로인이 확실히 원수로가가 아닌줄 알고 의심이 풀리엇다 유복이가 다른놈을 몰올라고 할케 그로인 어영에 질엇든 질행이들들면서

『내가 지금 돌재아들에게 들가는데 얼는가야 할일이 잇서』

하고 말하야

『네 그럿습니가 그럼 어서가십시요』

하고 유복이가 그로인을 보내고 그뒤에 여긔저긔 다니며 물어보와서 옵내에 로가성가진 사람의 집이 십여호나 되는 것을 알엇고 또 그중에 본토사람으로도 자손만코 농사지어서 요우하게 사는집이 단한집인것을 알엇다 유복이가 그에 이모무에게 들어두엇든 발에 맛는 로가는 그집뿐이라 그집을 차저와서 무밧게서 주인을 만나자고 하얏더니 새파락케 젊는사람이 하나 나왓다

『당신이 이집주인이요』

『비 그럿소』

『당신 아버지잇소』

『비』

『지금 집에 기시오』

『등산 불닐보더 가섯소』

『등산이라니?』

『등산人곳 나가섯단 말슴이요』

『당신 아버지 년세가 올에 멧치시요』

『그건 왜 뭇소』

『좀 알어볼일이 잇소』

『올에 쉬흔여듧이시요』

『쉬흔여듧? 올에 넘흔이나 닐흔하나라야 나이 마질터인데』

하고 유복이는 고개를 비틀엇다

『무엇이 맛는단 말이요』

『내셈으로 말이요 당신 할아버지 기시오』

『기시지오』

『올에 나이 멧치시요』

『아흔한두엇되섯소』

『아흔한두엇? 너무 넘고처지는걸』

『엇지해서 넘고처진단 말이요』

『내셈으로 말이요 그러구느나 이 넘은놈된이는 업소』

『업소』

하고 그 젊은사람은 곳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엇다

◇ 政府도 바랄 [illegible] 먹엇다는 말

◇ 『米穀의도 依然 折價』만나고 新春氣分은 販賣酒부터 依然한 것。

◇ 京城府內年賀郵便이 昨年에 比하야 授受四十八萬八千四百七十六通 配達九十一萬三千二百八十四通式 各其增加

◇ 其中朝鮮人便만의 數字는 알수 업스나 增加減少與否를 判斷하고 그 理由가 同一할것만은 不問可知


謹賀新年

タクシ 貸切
京城府授恩洞二〇一番
電話光九七八番
海東自動車部
主 金大泳

海州

黃海道金融組合聯合會
黃海道金融組合理事一同

黃海道評議員 吳昌煥

東富商會 電話一二六番

海州刑務所職員一同

喪中欠禮 海州日新醫院 朴聲行

大正館 電話一四〇番

海州郡廳

海州邑長 冲本正晴

敬信商會 電話二七三番

辯護士 鄭順錫 電話二六番

海州藝妓組合 電話三〇九番

首陽樂器店 主 崔崙植

藥酒燒酎 海州釀造場 電話一六二番

金相敦

黃海道立海州醫院

中央醫院 電話二一四番

海州金融組合

朝鮮旅館 電話三六八番

信興組合 電話一五二番

伊藤藤一

海州無盡會社

大同精米所

三成精米所 電話三六三番

金景壽

海州邑內公立學校 職員一同

至誠齒科醫院

雜貨卸商 吳世暎商店 電話二〇番 振替京城一八七五〇番

驪州

驪州酒造場 電二九番

驪州邑內 宋鴻來

驪州邑內 李重薰

驪州 無名氏

驪州邑內 金喜泰自轉車店

驪州邑內 朴東興

司法代書人 李弼奎 電話三五番

米穀商 ㊄商會驪州支店 電話一五番

싱거裁縫機械會社 驪州分店 主任 柳炳盛

驪州新錦成一精米所 成銓永

寅和堂藥房 主 趙翊相 趙敦相

驪州邑內 兪興鎭病院 院長 兪興鎭 助手 兪晃鎭

# 國民政府策戰上 對日開戰令嚴命

## 來十六日以內로開始하도록 東北義勇軍等에게

【南京三十一日發電】國民政府는三十一日張學良을通하야熱河의東北義勇軍及民團軍에對하야聯盟에서의日本의立場을窮地에빠트리는策戰上一月十六日前에日本軍과戰端을開始하라는嚴命을發하얏다目下熱河에잇는義勇軍의配備는如左하다

▲第一旅劉體泉(熱河) ▲第二旅李錫如(錦西) ▲第三旅夏演唐(開路) ▲第四旅王天樹(朝陽建平) 第五旅吳雷漢(北票)

其他曹廷歷等의各民團軍을各地에配置하얏다

【南京三十一日發電】確報에依하면國民政府는다시各地駐屯軍에對하야密令을發하야日本軍과全面的戰鬪를開始하려고諸般의準備를가주고잇다이것은蔣介石도熱河를喪失함은滿洲를擾亂할根據를일케됨으로이것을두려워한結果이다

五千三百六萬圓이되엇나 이리하야二千七百九十九萬二千圓이라는 補償準備發行限度擴張以來最初로現在發行을보게되얏고 또이發行高는 昭和五年末以來의最高記錄으로 一方貸出高도

一千七百四十三萬四千圓이減하야 八億圓臺를突破하야八億七百二十一萬七千圓이되얏고이 結果預金은二千八百七萬四千圓이減少되나 一億七千百十二萬五千圓이되얏나

## 露中不可侵條約 假調印終了全文

【南京發電】露中不可侵條約은十二月十二日제네바에서顔惠慶氏와리트비노프氏間의假調印이엇는데이不可侵條約에對하야리트비노프氏는中國全權에게左記와如한四原則을提示하엿다卽

一、締約國은相互間에侵略行爲를抑制할事

二、締約國은締約國一方이反對하는政治及經濟的聯合或은協定에加入치안흘것을約定함

三、締約國은第三國의攻爭을바들때에는相互中立을嚴守함

四、締約國間의紛爭은普通外交手段으로解決키不能할時는和平的處理方法을協定함

以上四原則을中國代表는完全히同意한外에 中蘇不可侵條約의基本草案을決定하고 雙方의代表는假調印을하엿는데그內容은如左하다

【第一條】中國政府及『쏘비엣』社會主義共和國聯邦政府는兩國에共通한 一切의政治上經濟上의關係에對하야 友誼的接觸을保護하야 兩國이가진平等하며 相互로主權을尊重하는基礎가 繼續하야存在한것을諒解함

【第二條】兩締約國은一國또는二國以上의第三國이締約國의一方에對하야 軍事行動을한境遇에는 他締約國은中立을직힐것을約定함

【第三條】兩締約國은相互를侵約하지안흘것 一國또는二國以上의第三國間에締約된政治的同盟或은軍事的同盟으로서他締約國을傷하야 된것에對하야서는第三國이他締約國에向하야하는敵對行爲에도또加入하지못함을相約함

## 何第九師長 辭表提出 免職機先制하고

【北平一日發電】山海關警備隊長인第九師長何柱國은三十一日附로張學良에對하야辭表를提出하얏는데그理由는過般山海關事件에關하야上長의命을不棒하고任意로日本軍에陳謝하얏든것으로서張學良은그의免職與否에對하야考慮中이기때문이다

## 米國大統領選擧 確定投票數 ◇米政府發表

【華盛頓發電】昨年十一月八日에擧行된米國大統領選擧에投票의確定數는未定이엇스나近者國務省當局이發表한바에依하면如左하다

루스벨트 二二、八一三、七八六
후―버 一五、七五九、二六六
도―마스(社會黨候補) 八八一、九五一
合 三九、七三四、三五一

## 日銀發行券高 記錄突破

三十日日銀帳簿에依하면兌換券發行高는 繼續되야三千七百十四萬五千圓이增加하야十四億

## 蘇聯駐中大使 『보』氏任命決定 ◇南京政府承諾어더

【莫斯科一日發電通】蘇聯政府는駐中大使로『데이마트리―보고모로프』氏를起用하기로決定하고南京政府에『아그레망』을求하고잇든中承諾을어덧슴으로同氏를駐中大使로正式任命하엿다

【略歷】『보구모로프』氏는目下駐英蘇聯大使館參事官으로今年四十三歲 그의外交官生活은一九二〇年부터 始作되얏는데 波蘭駐剳公使와 駐獨蘇聯大使館一等書記官을歷任한後現職에이르럿엇다

## 軍縮을싸고도는 武裝平和의世界 (3)

崔昌圭

### 羊皮를쓴豹狼(續)

다음航空母艦에關한協定에잇서서는 一萬噸以下의航空母艦도華盛頓條約의保有量中에包含식힐것 一萬噸以下의航空母艦의備砲口徑을六吋以下로할것등가지엿다 航空母艦이라는것이本是攻擊用안以上 그리고費用이莫大하며 또攻擊用으로서도가장有力한것인만큼 無論全廢하여야할것이아니엇든가? 셋재로大型巡洋艦에協定에잇서서는그保有量을日本一〇八、四〇〇噸 英國一四六、八〇〇噸米國一八〇、〇〇〇噸으로協定하얏다 적어도英國의現勢力을半減하는標準下에協定하여야할것이아니엇든가 以上數字로보아무슨縮少가잇스며廢棄가잇는가?

넷재로小型形洋艦에關한協定에잇서서는 日本一〇〇、四五〇噸 英國一九二、二〇〇噸 米國一四三、五〇〇噸으로그保有量이協定되얏스니 그時의現勢에比較하면 日米兩國에잇서서는 오히려 擴張하고만셈이다 다섯재로 驅逐艦에關한 協定에잇서서는 그保有量을 日本一〇五、五〇〇噸 英國一〇〇、〇〇〇噸 米國一五〇、〇〇〇噸으로 協定하얏다 이것도 代換艦節에 達하는것이 잇슴으로 新造하여야할것이 잇는以上 무슨縮少일것인가? 여섯재로 潛水艦에關한協定에잇서서는 그保有量을 日英米三國이모다 五二、七〇〇噸으로하고 最大排水量二〇〇〇噸 備砲口徑五吋以下로할것과 使用에關한若干의制限이協定되얏다 이에도 代艦으로新造되여야할것이 이잇는것은勿論이다 마즈막으로海軍根據地에關하야서는 攻擊以外로는 아모理由를 갓지아니하는것임에 不拘하고 代表中한분도입밧게 말을내어본일이업다 以上이倫敦會議에서決定된暫定協定이다

昨年二月二日부터 瑞府에서議長『헨더―손』氏의『暴力과戰爭을排擊하야 會議를失敗로終了하지안토록 努力하자』는開會辭로 第四回軍縮會議가開催되얏다 討議中佛蘭西는『安全保障第一主義』를主張하야 國際軍創設을提唱하고 英國은戰鬪艦廢棄와 潛水艦全廢를主張하고日本代表는主力艦型及 備砲口徑의縮少와航空母艦廢止는等으로 이案이發表되자이에對해 獨逸伊太利兩國은 徹底한軍縮을 그리고『쏘벳트』露西亞는 軍備全廢를各其論한바잇서왓다 어재참말軍縮의機運가보이는듯도하엿다 그러나 이나마言行이一致될수가잇슬理가萬無한일이다 其他許多한卓上空論이 瑞府의몸낫아지랑이속에서 켜멋대보터커나왓다가아직까지 이러타할만한氣槪를아니보이고잇든 米國이六月二十二日에 所謂『후―버―三分之一軍縮案』이發表되얏다그內容은 大略如左하다

一、化學的戰爭方法及重遊動砲全廢
二、一切陸上軍及陸軍力의三分之一減少
三、爆擊機의全廢
四、空中爆擊의禁止
五、海軍條約所定의 各國保有全戰鬪艦의噸數及隻數의三分之一減少
六、一切航空母艦 巡洋艦 驅逐艦 ○各海軍條約所定의各國比率噸數及隻數의四分之一減少
七、條約所定의噸數 艦三分之一減少及潛水艦噸數保有噸數를三萬五千噸으로制限

하야서는俄然 是非가紛紛하엿다 그中伊太利 英國 獨逸은贊意를表하얏고 佛蘭西 日本의兩國은絶對로反對를主張하얏서서 軍縮案으로서는 相當히무게가잇서보인다 그러나裏面에이서서는 오로지 欺瞞策일뿐이다 比率에잇서서 가장만흔率을가지고잇는 米國은 三分之一을縮少햇댓자 亦是가든그比率인同時에萬一에아직까지의그數量으로서第一位의比率을가지려면 不可不莫大한費用과許多한時日이必要한外닭이다 또特히潛水艦에對하야 意外로勇斷을보인理由는 攻擊的立場에잇는米國으로서는 他國의潛水는後患이될念慮가豐富하것이다 그러고特히이저서는안될것은 이軍縮으로因하야 世界各國은거이軍費의減少를보게되야經濟的으로 裕餘하여질것이다 世界各國은거의米國의負債者가되고잇서 端的으로말하자면 債權의얼마간이라도막어보자는衷肚에서나온 奸策에不過한것이다 그後日本은日本의立場에서 英國은英國의立場에서 제各其軍縮案을發表하야제各其自己案이理想的이며 公平하다고自畵自讚을 침이마르도록늘러노앗다 그러나그案의內容에잇서서 根本的態度가相反하는以上相互間에서 妥協될理가업다 다음『벨사이유』條約以來虐待를바더오든獨逸이 八月下旬에軍備平等權을 要求하엿다 그러나이것에對한 反對의急先鋒은 무론볼것도업시安全保障을方패로하는 佛蘭西엿나이라하야第四回軍縮會議도 請訓과回訓의往復裡에 如何間討議는國攝大其他 若干의紋議問題와獨逸의再參加等『相當한效果』를보아 『失敗』하지아니한程度에이서서 希望이넘치는 新春으로서러넘겨오고말엇다

眞正으로 平和와不斷의繁榮을하는무리들이 許多한時間과莫大한費用을 虛費하야가며겨우만드러노흔結果가以上에또이러한形勢下에 進行하고잇나그럼으로 그들의演劇은實情에이서서 假面劇에不過하다아니面에이서서 平和를누르짓는反面에 裏面에이서서는오로지自身의欲望을追求하야戰爭準備하고잇는아들이야말로羊皮를쓴豹狼이아니고무엇일가보냐?

## ◇獨逸나치스의三支柱

混沌한獨逸政局에서 混沌은더하게하는지混沌을업시하는지아직은疑問의 絶對多數를制하지못하고恒常말성을이르키고잇는第一黨인 나치스의動向은一九三三年獨逸政界의바로메터이다寫眞은去十一月파―펜內閣辭職後組閣問題로全獨逸國民의注目中에會見하고나오는나치스派의三支柱、左로부터괴―링、議長)氏와힛트러氏와텡걸(나치스機關紙主筆)이다。

## 二巨物과양키의넌센스二題

### 米國官憲이取調 아인슈타인博士를

#### 共産黨과關係잇스니入國拒絶하라는愛國協會의要求로 大學者의멘탈테스트

【伯林發信】相對性原理로有名한 아인슈타인博士는最近米國學界에서 招待되야渡米햇는데그에對하야 左와如한우수운事件이이러낫다 어떤나라에나 말성만흔할머니가잇는것이라 米國에도婦人愛國協會等의 할머니들會가잇는데아인슈타인敎授는 共産黨과關係가잇슴으로 入國을拒絶하라고떠들어서 國務省에請願하얏다 國務省에서는솔데업는旅券査證에關한 責任은旅券査證을하는 領事館에게잇슴으로 그러한風評이잇서서는 한번은通告하야두지안을수가업겟다 通知를밧은 總領事館에서는責任上한번은 取調하지안을수가업서서 博士에게出頭하라고하얏다 博士도旅券이라는것에査證이必要하다가突然히呼出을當하야 무슨일인지를모르고 夫人同伴으로出頭하엿다 그러고 이것은 世界的大人物의『멘탈테스트』는開始되엿다

『失禮입니다마는 博士의政治上信條는?』 領事館은이러케 물엇다

博士는기가막힌듯이잠잣코잇다가갑작이爆笑를하면서

『나는그런것모른다』

『그러면어떠한 一團體에加入해잇습니가』

博士는머리를벅벅긁으며夫人을처다보다가

『올치 나는이요 戰爭防止會의會員이오』

『戰爭防止會라고하면 어떤會입니가』

『다 나의同무요』

이러한모양으로 問答은四十五分間이나繼續하엿다 敎授는마즈막에는怒氣가衝天하야

『大體君들은무엇인가 나는무슨理由로君들이 그러한愚問을하는지모르겟다 참기가막혀마치宗敎裁判을밧고잇는것갓다』

博士도大怒한것은 그以上으로大怒한것은夫人이다 博士는고門을나와버렷다 夫人은 집으로돌아오자마자 곳總領事에게편지를쓰고『博士는決코米國에가고십허서 갈여는것이아니다 米國의招待로갈여고하는것인데이것이 무슨내갑인가고약하다』―고 만일다시그런일이잇스면斷然히渡米치안는다고『最後通牒』을發하엿다 結局總領事館에서는 그냥旅券을査證하고 博士도칭이 풀어커二三日後에 出發하엿지마는……

### 映畫出演交涉 『트』氏拒絶

【羅馬發信】『양키』氣質을諷刺하고 最近에『아다후』라는假名으로가만이『맙모란』將의푸링키포島를脫出하야再次漂泊의旅程에올낫든트로츠키가나포리港에上陸하얏든時의일이다그가夫人과함께一時船室에서기다리고잇든各國新聞記者와寫眞班의 猛烈한包圍攻擊을 밧고잇슬때그는또다시허리우드의엇던映畫會社의監督이보낸片紙를바덧스니그內容은트로츠키의나포리寄港을안映畫監督이唐突히그에對하야『露西亞革命』의映畫의主役으로써出演하야달라는것이다 그후에 監督은트로츠키가丁抹에갈것도잘알고잇서이미코―펜하겐에는同社의代表者가二名이나出張하야契約書에트로츠키의싸인을기다리기로되엇다는것으로萬若트로츠키가이申出을承諾하야주면그가丁抹에到着한後莫大한報酬를支拂할旨를提議한것이엿다

이申出을밧은 트로츠키는편지를다읽고 天然스럽게엽헤잇는 秘書를도라보고이러케말하얏다 『余의記憶이틀니지안는限余는이미故國露西亞에서 充分히그役割을한터이다 米國人은우수운國民이다 彼等은世界的인大事件도 쉽사리이저버리는모양이다 그런要求는拒絶하자』 그것은冷徹한諷刺家의面目躍如한것이엿다

## 俗謠(佳作)

吳允模

둥너주게 둥너주게 둥너주게
요내밈에 둥너주게
요내밈매 둥너주게
준치자반 먹는나네
못하겟네 못하것네
그래밉매 못하것네
준치자반 아이먹는
신세궁산 좀이슬가


# 謹賀新年

平壤府西門外 圖書雜誌印刷 名國活字鑄造 洋式帳簿製本 和洋紙直輸入 紀新社 電話七四九番 倉庫電話七七九番 電信略號(キ)又ロ(キシン) 振替京城一六八八〇番

平壤府船橋里 張惠醫院 院長 張相武 電話六一九番

平壤府舘後里 聖母幼稚園 園長 梁基涉

平壤府南門通二丁目 和洋家具商 平安家具社 主 李鳳現

平壤府西門通 建築請負 材木各種 衣籠衣欌 椅子테불 세멘石灰 三成商工社 主 金成淳 (硝子塗料特約販賣) 本店電話一〇七〇番 振替京城九六四四番

平壤府薛岩里六七 辯護士 崔鼎默 電話五九一番

平壤府法橋 絹綿布商 鄭基恒 電話八四五番

平壤府泉町 金徠銖

平壤府旭町十一番地 最高級ナイト 山口ノ自轉車 至廻轉部防水式 マルソイ納濟車 榮輪自轉車商會 主 閔輝植 電話一三二一番

平壤府上水口里 大同印刷社 電話一二〇九番

平壤府巡營里八八 箕城精米所 電話八六〇番

平壤府西門通 工産商會 電話四九六番

平壤各組合聯合會

平壤朝鮮人宿屋組合

平壤府水玉里 快樂軒 電話一二〇二番

平壤府慶上里四四 朝鮮料理元祖 翫月亭 電話一三四〇番

神戶

既製品部 神戶市春日野道通阪神電車下ル 註文部 神戶市春日野道通阪神國道下ル 毛織物 洋服一式 福永商店

神戶市葺合區神若通六丁目一四 アツマ屋 婦人靴店 主 池在善 池在順 電話(葺合)四〇六八番

神戶市葺合區八雲通四丁目五四 日光堂漢藥房 主 金尙起

神戶市日暮通一丁目九七 李三桓

神戶市葺合區大日通七丁目七四 朝鮮料理業 金起鎬

神戶市葺合區若菜通五丁目九八 デピスクリーニング洗染店 金鳳三

順安

京義線順安驛前 東光商會支店

順安驛前 順安消防組一同

順安驛前 中央商會 朴起龍

順安驛前 玉慶植醫院

順安驛前 大鹽清市

元一酉 金義燮

順安驛前 康義鳳

順安驛前 佐野森作

順安驛前 李源赫

順安農業倉庫 林永模

順安驛前 三和商店

順安驛前 韓善恒

順安驛前 順安病院

順安驛前 私立義明學校

順安驛前 中川商店

順安 信興商會 金基任

順安 豐川商會 金完起

順安 淺野順安採金所

順安驛前 順安親交會

京義線石岩驛前 李源翊

# 꼭解決해야만될우리地方의重大懸案

## 傳染病의源泉이된 江界邑內의井戶水

### 然中에飮料水恐慌까지생겻다

### ◇江界邑上水道問題

【江界】 다년간을두고이중삼중으로 두통거리든 강계의상수도문제(上水道問題)는작년중도 그해결을 보지못하고 커무려가는 일천구백삼십이년과 가티섭섭이도 너머가고야 말엇다

강계로말하면 그래도 평북에서커명한곳으로 만여명의 인구를포옹(抱擁)하고잇는지방이니만큼 더구나당지는 국경의물자적(物資的)집산지임으로장래가 유망난지대라 안흘수업다 그런나몃해를두고 머리싸매고 해결하려든 문케를하지부지 한중에 넘겨버렷스니 금년에는 어떠한 지장이잇든지 아모리큰난관이 잇드래도 만여주민은 힘을가티하야 이문케를 해결하여야만 될것이다

원시일각을 다투며 발견책을강구하고잇는 강계로서 오날까지 상수도설비를 못가지게 된것은 어듸로보든지 이지방의 수치와 유감인동시에 그반면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언재나공포심(恐怖心)을주게되니 실로한심한일이다 산읍(山邑)이나만큼 과거에 잇서서는 조그마한 촌락에불과하엿스되 그당시는자연의 수토(水土)가조햇다 그럼으로 과거에잇서서는 정호수(井戶水) 로 청결하여서 위생상그다지 해로운점까지는 업섯든것이 현재에 이르러 서는 사방 으로 몰려드는사람을 보면과거와 현재를비하야 엄청난변천을보게 될것이다 그럼으로이와가티 시가지가 복잡한반면에는 자연수토는 불결해지고 또정업는 우물는말이 못되게 수질(水質)이납부게 되엿다 그것뿐만아니다 이일칠일은 시일(市日)이되여 각처로부터장군은 약만여명이라하니 이 복잡한 인마의왕래는 일반이쓰는우물물로 하야금실로 하수도(下水道)나다름업시 만드러 놋는다 그래서근래에 보지못하든 성홍렬(猩紅熱)까지 도류행되고 그밧게 다른악질까지 발생되는 관계는자못이수토의 불순한 관계로생각한다

더구나 근일에와서는 몃개안되는우물물도 극도로더럽게 되니사용하지못할정도에 일으릿슴으로 음료까지결핍하야 일반의생활을 위협하고잇다

## 地方費補助와 住民努力必要

### 오만원보조내약이잇스니 地方當局의努力이必要

상수도로 말미암아 이중삼중으로고민을당코잇는 강계로써 길분소식이 들리여왓다 강계에상수도가 절대로필요하다는 것을인정한 평북도(平北道) 당국에서는 지방비(地方費)로 약오만원가령을 보조하여 주겟다는언약까지 잇게되어 강계읍으로부터동으로약이십정(町)가령되는곳에 커수지까지 내정하엿는바 남어지경비 칠팔만원이 문케가되여지금것 해결를 못짓고잇다 이해결책은 오로지 지방민의활동여하에잇누것이다아직당지일반생활상태로보아만일상수도를시설하면그수도국(水道局)의유지(維持)가곤난할것도고려할것은물론지방민으로써는다소곤난이아니라할수는업나 그러나 시민위생에절대한불안을주고잇는데비하야는 아모리어려운 점이 잇드라도 꼭시설하고야 볼것이다 연만아니라 미구에강계에도 철도가부설하게되면그때는강계는 그관구보안구모다 가설치못될것으로 배수(配水)의 삼분지일(三分之一)은넉넉히사용할것이라고생각된다 이예를 당하야 지방유지는 합력활농을하야 금년도에는꼭해결을보도록하야 일반주민을도하여곰불안을덜고 우리지방의장내발전에도음이되도록바란다

## 自働車가 老人을轢殺

### 慈義線街道에서

【新義州】 다전상회자동차부(多田商會自働車部)승합자동차 평북제삼십삼호가 지난이십륙일 정오벽동(碧潼)삭주(朔州)로향하야 질주하든중 도중인 벽동군송서면서동(碧潼郡松西面西洞)의 자의선(慈義線)이등도로로 마조오든 창성군련수동(昌城郡連水洞)임벽류십사번지 벽동인(白樂瀨)(六五)이란 로인과 충돌하야 자동차는동로인을깔고 오십여척이나굴러 언덕에떠러트려 인사불성이 되엿는데 이급보를접한소관송서면(松西面)주재소에서는 소원파박의생(朴醫生)을 급파견하야 응급치료를가하얏스나 원체 중상임으로 동이시경에 사망하얏는네 소할서에는 운전수강창흥(姜昌渕)을 목하 엄중취조중이라한다

## 發起中에窒息된 消費組合을再興하자

### 基金보담은獻身的人物이必要

### 鎭南浦의消組問題

진남포에서 금년중으로는 반드시해결하여야할중대하고도다년현안으로 되여잇는문케는 소비조합문케이다 생산력이 부족한우리는 반면에 소비조합이필요하다는것은 더의론할 필요도업다 진남포는 두말할것업시소비도시에하나이다 이에따라 작년십이월에 진남포에 유지삼십여명과 린접지인 룡강서량군에각예수교회직원과 유지들이 합하여 팔십여명의 발긔인이모혀총자금일만원을일개월이내로모집하되 한주에 오원식주를모집키로 만장일치가결을하고 각지방에 출장도하고 부내에는가가호호방문도하여 모집에 로력하엿스나 일반이 소비조합에대한리해가적은관계와또는최후까지일을위하여 헌신할 인물등여러가지사정으로일은중지하게되고말엇다 그후도 발긔회를수차열어노코 한주금오원이만흐니 일원식으로하자는등 또는 헌신할인물이 필요하니 인물을구하자는등의론이분분하엿스나종시결론을 짓지못하고 일년이남은오늘까지 숙제로남아잇다 발긔인들은물론 뜻이잇는이들은 이문케는 우리의사활문케이니 엇든묘안이 업슬까하고 연구하는중이다 금년중으로 반다시 진남포에서해결하지안으면안될큰문케의하나인줄안다 이문케의 해결책으로는 무엇보다도 헌신적으로로력할인물이잇기전에는소비조합문케는 해결책이 업슬줄안다물론논을가저야사업을하겟지만소비조합은 엇든 큰자본가가만흔금권을가지고 하는 사업이아니고우리주머니에서적은돈을 너러사람으로부터모하서하여야될사업이니만치 헌신적으로 그일을 위하여웃까지 헌신할인물만 나선다면금년안으로 진남포에 우리가그러한는소비조합이나올줄밋는바이다

## 酉年의主人公인 平南의鷄公統計

### 雄鷄十四萬五千首 雌鷄三十九萬餘首

【平壤】 금년은유년(酉年) 평안남도내의 양계상황(養鷄狀況)은엇더한가? 평남도에서양계를하는호수가십삼만일천삼백십구호나되나전국적으로보면제칠위로빼오십사만팔천칠백호나되는전국적양계호수의일할에불과하다 그러나평남의양계사업은착착진행되는동정에잇서현재에만도숫닭(雄鷄)십사만오천여수암닭(雌鷄)삼십구만오천수에 달하여성적은퍽도조흔상태이다 그런데평남 전도내에 농업호수(農業戶數)십륙만팔천여호컨부가금후부업(副業)으로매호사수식양계를 하게된다면 전국중제삼위는 될수잇다는데 금후철저한장려를 하기로 되엿다한다

현재의 계란(鷄卵)의 년산액(年産額)일천오백이만오천여개로한개 일전칠리(一錢七厘)로계산한다면 이십오만 이천여원에달하여 허술히볼수업는 수입이라하며 계육(鷄肉)도 년액백십이만팔천여근(斤)으로한근에칠전식으로 따지면 사십일만사천여원에달하여계육통계(統計)로전국중 제일위이어서 평남사람들이 닭고기를 얼마나만히먹는다는것을 알수잇다한다 유년을당한금년을 일천긔로하야 금후양계사업에 크게힘을 드리기로되엿다한다

## 第二回江華蹴球

### 來五、六兩日間

【江華】 강화심우구락부(江華心友俱樂部)에서는금월오、륙량일간 제이회 전강화축구대회(第二回全江華蹴球大會)를동아본보두지국의 후원하에 강화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개최한다

## 平壤地方의乖候

### (大同江은解氷되고 日暖風和初春日氣)

【平壤】 굿게굿게얼어매일수천명의「스케이터ー」들의천연적운동장으로화하엿든대동강의어름은 근일의따뜻한일긔로녹아버리고창창한물결이넘실거리게되엿다릉라도(陵羅島)의수양버들은 지금에 죽시파릿파릿한엄을뱀어내일듯싸안인물결과양류의 그림자를 구경하게되엿다 십이월하순에 대동강에서 양춘사월경에나볼수잇는창파구경을만다는것은 십수년래처음의일로수만흔「스케이터ー」들의 눈살을 찌프리게하는것은말할것도업시만흠는이들은큰변괴라하여이야기꺼리까지되엿다

## 消費組合建物을 警察이出張毁撤

### 認可업시寄呈바더建築햇다고

### 統營郡光道面에서

【統營】 통영경찰서 (統營署)에서는지난십삼일에동서원이명을 출동식혀 광도면안정리(光道面安井里)에가서그곳청년네명과 통영 소비조합간부(統營消費組合幹部)두명을검속하고 절대비밀리에서 우금외지 취조하다가 비로소작년섯달이십팔일에 석방하엿다하며 지난이십사일에는 권긔 경찰서국지고등계주임(菊池高等係主任)이 게원일명과 광도면주재소(光道面駐在所)소원들을인솔하고 검속중에잇든 통영소비조합안정지부(安井支部)상무리사로잇는 김영문(金永文)군을 다리고 안정리에나가서 새로건축하야노흔 소비조합안정지부 점포를모조리 허러버리엿다는데이케그자세한 내용을 드른즉통영소비조합에서 금년 하긔부러광도면 안정리(光道面安井里)에 지부(支部)를설치하야 농가에일상 소비되는물품을 구비하고 렴가로써 빈궁한 일반농가에배급하야오든중그조합원들은점포가협착함을 늣겨오다가 자진하야 재목은 조합원들의 긔증(寄贈)으로하고 그곳요지에다점포를새로건축하얏다는데원상주목하고잇든 권긔경찰은 무슨다수한긔부나 밧지안햇나하야 관계되는 청년륙명을 그와갓치검속취조하는동시에 각방면으로 조사한결과 별로히 사건는업승으로석방은하얏스나 그조합원들이자진하야긔증하얏다는데 도불구하고도지사인가(道知事認可)업시 긔부바덧나는 리유로써새로지은 건물을 모조리허러버리엿다하며 재목은 각기긔증자들에게 도로난호아주엇다는데 일반은 경찰의간섭이 너무심하다고말성이만타한다

## 楊口郡南面에 新設市場開市

【楊口】 강원도양구읍(江原道楊口邑)으로부터 약이십리허에잇는 남면가오작리(南面佳吾作里)에서는 작년삼월경에시장청원서(市場請願書)를도당국에 제출하엿든바 금반인가가됨에따라 지난이십오일 음력이십팔일에야 비로소 개시를하엿다는데 일반이갈망하든 시장인만큼 남녀로유가모여드러 물건매매도 초일로는 상당히만엇다고하며 장날은 음력으로삼일팔일로정하엿다고한다

## 決算表에나타난 1932年平壤社會相 (中)

### 敎育、商工、水利、勞働、保健

平壤支局ー兩聲生

### ◇水利問題

昨年新年劈頭인 一月七日에嚴重한警官의干涉을 避해가면서 平安水利組合地主三百名이平安道廳에殺到하야 水稅減下及組合長不信任案에對한 陳情을하엿고同月十八日翌月水利組合地主代表等도亦是가튼問題로 陳情하야 死活에關한重大問題를 부르짓고二月中에 平安水利組合地主들의 指摘으로水組當局幹部들의大疑獄事件까지 發覺되엿스나 어느組合을勿論하고 陳情又는告訴에對한 何等의收穫도업시되엿고 水稅未納으로因하야平安水組에서는 數十萬坪의土地를差押까지하엿다는事實이잇섯다

말정이만흔 昭和水利組合創立問題로 第三案을採用하기로하야創立總會를 열엇스며十一月水稅納入期를압두고 平安、江西 長水院等各水利組合에서又復陳情이 잇섯스며 平安水組地主會代表等은 總督府에까지 陳情한바잇섯다

以上과가티各水組에서만흔費用과時間을 虛費해가면서陳情단 가는反面에는 얼마나한苦痛과 不平이綿綿하엿다는것을臆然히짐작할수잇다

더욱이今年은 뜻하지못한霜災로因하야雪上加霜의 困難을밧게된地主들과 農民의慘狀을見聞할때에 感慨는더욱깁나

### ◇商工問題

四月上旬께에 平壤鋪路商界에서中心勢力을잡고잇는 百餘處布木商들노 組織되여布木商組合과仲信組合間에口錢問題로紛糾가일어나 數個月間이나持久戰을 繼續하다가 彼此의讓步로圓滿解決을지엇스며 其外에도二、三紛糾가잇섯스나 雙方의充分한 理解로 이것키것이다無事히 結末을지엇스니 平壤으로서는 祝賀할일이다

再昨年七月朝、中人衝突事件以後中國人貿易商들의 全部沒落으로因하야 朝鮮人商界는殷盛을極하여 年來로볼수업는好景氣를보엿고 圓價暴落으로因하야一日一夜間에 數萬圓乃至十數萬圓의 資金洗鍊을바더卒富가된商人도二、三人이안이며平壤商路全部를 通하여去來阻止를當하거나 破産을하엿다는商人이全無하다는것等을보아 一九三二年은 平壤商業界에 大當運의一年이라고말하고십ㄴ

平壤을가라켜 自他가工業地帶工業都市로稱號를 붓치고듯는만큼 各種工場은到處에羅列되여잇다 再昨年中에는資金涸渴及市場縮少等으로因하야 平壤이자랑하든 고무工業과靴襪工業이不振狀態에빠저悲觀의빗이不無하엿스나至於昨年하여서는 滿洲關係와景氣回復關係로販賣市場의擴大生産品需用者의激增等으로俄然活氣를띄어大部分의工場에서는晝夜兼行으로 生産에沒頭中임은 亦是例年에볼수업든好景氣이다 이러한現狀이平壤商工業界를爲하여長久히繼續하엿스면한다

### ◇勞働問題

三月二十日船橋里平南水上運搬組合員 四百名이 賃金引上問題로盟罷를斷行하엿섯스나雇主側에서讓步하여 即時從業하엿고 其他少規模의勞資間에衝突이잇섯슬뿐으로 昨年一年間에 勞働問題는極히平和無事햇다 要컨대景氣好轉으로因하여 作業이繼續되여 職工側의 收入이 減하지안엇다는點과 雇主側에서도 同樣의 理由下에서亦是어느程度外지 職工들의不平을업시하노라고 努力하엿다는것이 平穩의唯一한理由일것이다同時에過去 數個年間에 各勞働團體의氣力이 衰弱해지고 累次일어난檢擧事件으로因하야指導者에잇든 鬪士들의入獄又는 死亡으로因하야勞働全體가無氣力 沈滯狀態에빠졋나고도 볼수잇나何如튼勞働運動이昨年가치드무無風狀態에 잇섯다는 記錄은語弊가잇슬지는몰으나平壤勞働運動有史以來 처음보는 奇現狀이엿슬것이다

### ◇保健問題

昨年陰曆正月一日午前六時三十分을期하야關西體育會主催인早起와保健運動을兼한 東明體操團의 發會式을擧行하여近百名의團員이于今까지繼續勵行中이며 四月下旬에 崇實專門籠球團은 東京斯界의覇者 早大籠球團을 招聘對戰하야早大軍으로大敗를식혓고 五月十二日부터 關西體育會主催第八回全國蹴球大會가開催되여 半島健兒들의가슴을뛰놀게하엿고 六月十三日에는 亦是關西體育會主催第二回全國씨름大會가 崇專體育場에서開催되여 勇士들의피를끌케하엿스며 八月初旬부터一個月半間 關西體育會主催로大同江越便沙場에서 日光浴水泳講習會를열어 每日千을헤아리는會員이모혀들어保健의使命을다햇나는것은 大書特書의價値잇는事實이다 九月二十三日關西體育會主催第二回關西體育大會를開催하야 有終의美를어덧고京城養正高普軍이大勝하엿다 十一月廿九日 光成高普體育會主催에서 亦是關西體育會主催노第一回庭球大會가開催되엿는데 만흔成績이잇섯다 一言蔽之하면今年의「스포츠」界即保健運動은 劃期的한區分的을超越한 大衆的으로運行되여왓다는것을 雙手를들어祝賀할바이다

## 竹山學院同情映寫會

目的 校舍修繕費補充

時日 一九三三年一月三日午後七時

場所 新鮮座 入場料(五十錢 三十錢)

主催 私立竹山學院 中央組合

後援 朝鮮日報新義州支局

## 第二回 全江華蹴球大會

時日 一月五、六兩日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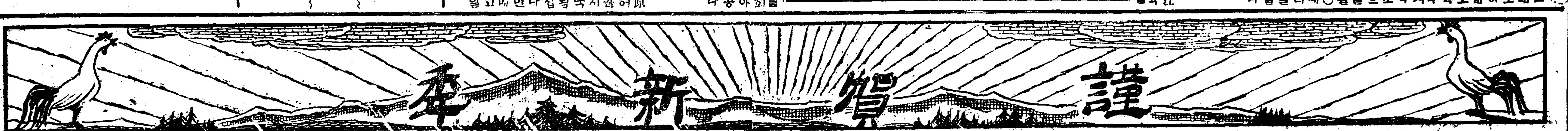
場所 江華公立普校運動場

申込期限 一月四日

參加金 青年團壹圓 少年團五十錢 (詳細追後發表)

主催 沁友俱樂部

後援 東亞、朝鮮日報兩支局





南部

西氷庫普通學校 校長 大野史郞 外職員一同

京元線西氷庫驛前 永豐精米所 主 柳雄秀 電話龍山七〇一番

西氷庫普通學校設立者 白斗鉉

西氷庫普通學校設立者 柳英秀

漢芝面協議員 全敬根

京城府三坂通 太正培精米所 電話龍山一一六五番

京元線西氷庫驛前 大光商會 主 車德根 電話龍山四九四番

京元線西氷庫驛前 西氷庫工友親睦會

京城府古市町一ノ一〇 朝鮮酒醬油製造販賣 吉野醸造所 主 李德鏐 電話本局一三五一番

京元線西氷庫驛前 弘濟少年軍第四小隊 西氷庫普通學校後援會長 李鍾馥

京元線西氷庫驛前 應明商會 主 金應有

信川

信川水利組合 組合長 閔奎植 理事 金鐘奭

信川邑 西鮮活版所

信川郡廳職員一同

信川穀物商協會 會員一同

信川郡諸門面 沙防工事務所 職員一同

信川郡信川面松楊里 李繼天

信川邑 濟衆醫院 醫師 李尙奎

信川邑 三星醫院 公醫 柳昌萬

信川邑 天主敎神父 李起俊

黃海線信川驛前 信川合同運輸組

信川邑 精米業 三合精米所 電話二六番

信川邑內 藝妓組合

信川郡溫泉面長 白明箕

浦項

信川郡文化市 文化金融組合

信川郡達泉市 達泉金融組合

信川邑 材木商 李商店

信川邑 信川醫院 醫學士 吳芝植

浦項金曜會

慶北浦項 慶北道評議員 金斗河

迎日郡廳職員一同

迎日郡産業團體職員一同

浦項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信川邑 李鉉瑚

信川邑 金文亮

信川郡南部面長 崔澤龍

信川郡府川市 河有聲

信川邑 海西醫院 醫師 盧在謙

慶北浦項 海吳病院 電話一六二番

慶北浦項 合資會社 金東商店

浦項邑長 下村重英

慶北浦項 合同印刷所 電話一一七番

義興

義興金融組合 職員一同

軍威郡 古老面事務所

義興産業組合

義興郵便所長 山下豊記

軍威郡 義興面事務所

義興 酒造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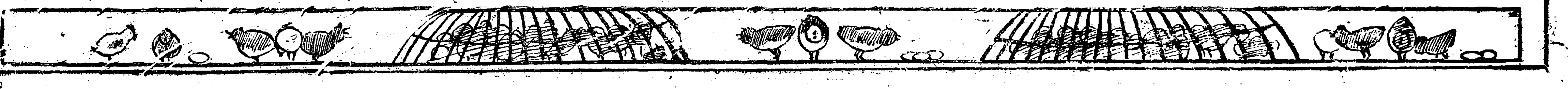
友保面長 李光宰

友保麴子組合

友保酒造組合

山城面長 李泰晋

山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 十五週年을맞는 사베트聯邦의現狀

## 世界大勢常識讀本 (五)

### 一、싸베트同盟의十五週年

一九一七年 十一月七日에 사베트聯邦이 생긴後 이제十五週年을 맞는다 사베트同盟은 現在의版圖가 비록 廣大하고 自然의産物이 비록豐富하다하지만은 全世界資本主義의 敵對아래 技術的으로 經濟的으로 뒤떨어진 그들로 壓倒多數의 小부르조아人口를 가진 그들로 이 十五週年의 싸운하고 춥기찬 歷史는 敵非敵을勿論하고 위선 感服치안할수업다 그들의 第一次五個年計劃이 이미成功하고 그들의 第二次五個年計劃이 다시시작되는 오늘날 全世界의恐慌이 바야흐로 노픈오늘날 이 十五週年의歷史는 敵非敵을 勿論하고 새로운意義를 부치지안할수 업다 그러나 버가지지今여과서 여러분으로더부러그들의 지나간歷史까지를 펼지도록 紙面과時間을 엇지못하얏다 오죽簡單하나마 우리는 그들의現狀을 알아둠에 그치려한다 勿論 現在의 사베트聯邦은 그內部에 反사베트主義者가 全然根絶되지 안앗다 富農 小市民等의 種類는 아죽도 사베트主義에 對한 阻害와破壞를 圖策하나 年前產業黨事件이란 有名한 事件은 그 조흔例다 또 現在의 사베트 同盟은 外部에 사베트主義와는 不容不納하는 資本主義各國으로外 圍繞되얏슬뿐이아니라 各國은 共同戰線을 버풀어 사베트主義를 막으니 國際聯盟의 根本使命은 실로 이點을 벗어나지안한다 더구나 오늘날은 資本主義의尖銳化攻勢時代다 資本主義各國의 五相對立도尖銳하지만 反사베트共同戰線은 一層더尖銳하더니오늘날各國政治對立의中心은 사베트同盟에對한問題다 五相對立으로因하야 步調가完全히一致된다고 速斷할수 업스나 그러타고 共同戰線의重要性을 抹消시키지 못한다 資本主義가 이기느냐? 사베트主義가 이기느냐? 우리는이決定的過程을 目下에 노코잇다 사베트聯邦의 十五週年은 이러한過程中에서 마저오는것이다

### 二、第一次五個年計劃의成功

前에 말한바가치일즉이露西亞는經濟的으로나 技術的으로나 다른資本主義國 英獨佛米에比하야 뒤떨어저잇섯다 사베트同盟이成立한以後로도 여러가困難아래 그發展은上은 決코容易치안핫다 그러나一九二七年乃至八年에는모든産業의 大體前水準을 突破하고다시 產業五個年計劃을 세워다 이産業五個年計劃이야말로 사베트聯邦이 그目的的建設의素礎를 세우고 못세우는 試金石이엇다 그러나 一九二八年에서 一九三三年外지의 五個年計劃은한해를드린키어 一九三二年에 四個年으로 完成되엇다 사베트聯邦은一躍 日佛伊獨은勿論 米英과拮抗하는巨大한工業國이되엇다(別表) 우리는以上의 數字로외五個年計劃의 成果를보앗다 어느部門에 잇서서는預定數字를 建치 못한곳도 업지안하나 大部分 그以上으로超過하얏다

◇第一次五個年實績

| | 一九三〇年實績 | 一九三一年實績 | 一九三二年實績 | 처음五個年으로計劃한數字 | 처음五個年計劃에對한增減(△減) |
|---|---|---|---|---|---|
| 一、財政(單位十億留布) | | | | | |
| 國民所得 | 三五、五 | 三七、八 | 四九、二 | 四九、三 | [illegible] |
| 社會化部門生產 | — | 二六、一 | 三三、二 | 三三、五 | [illegible] |
| 工業 | 四、〇 | 八、二 | 一〇、九 | 四、一 | [illegible] |
| 農業 | — | 三、六 | 四、四 | — | — |
| 運輸總額 | — | 二、七 | 三、三 | 三、〇 | 一〇、〇 |
| 鐵道 | 一、六 | 二、二 | 二、五 | 一、九 | [illegible] |
| 二、電化 | | | | | |
| 能力(百萬킬로) | 二、九 | 四、一 | 五、六 | 五、五 | 一、九 |
| 同 地方發電所 | 一、三 | 二、三 | 三、二 | 三、一 | [illegible] |
| 生產十億킬로時 | 七、七 | 一〇、六 | 一七、〇 | 二三、〇 | △二三、八 |
| 同 地方發電所 | 三、四 | 六、〇 | 一〇、〇 | 一四、〇 | △二八、六 |
| 三、國營大工業(單位十億留) | | | | | |
| A·生產財産額 | 二三、五 | 二八、〇 | 三五、四 | 三四、五 | [illegible] |
| 石炭(百萬噸) | 四七、五 | 五八、六 | 六四、〇 | 七五、〇 | [illegible] |
| 石油(同) | 一八、九 | 二三、六 | 二六、〇 | 二一、九 | [illegible] |
| 銑鐵(同) | 五、一 | 四、九 | 六、〇 | 一〇、〇 | △[illegible] |
| 生鋼鐵(同) | 五、九 | 五、四 | [illegible] | 一〇、五 | △[illegible] |
| 延壓鋼材(同) | 四、五 | 四、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鋼(千噸)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機械製造百萬留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農機(同)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트락타(千臺)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自動車(同)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機關車(同)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B·消費材 | | | | | |
| 綿織物百萬메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간쓰메(百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洋靴(百萬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四、農業 | | | | | |
| A·作附面積(百萬헥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國營農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集團農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棉花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甛菜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B·集團化 | | | | | |
| 家族數(全體에對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五、勞働者(單位百萬人) | | | | | |
| 賃銀所得者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賃銀總額(十億)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重要生產額各國比率

採炭量(百萬噸)

| | 一九三〇年 | 一九三一年 | 一九三二年(預定) |
|---|---|---|---|
| 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英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獨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佛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世界生產額에對한사의比率 | 三%四 | 五%〇 | 七、〇 |

◇鑄鐵生產額(百萬噸)

| | 一九三〇年 | 一九三一年 | 一九三二年(預定) |
|---|---|---|---|
| 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英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獨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佛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世界生產額에對한사의比率 | 五%九 | 六%九 | 一〇、三 |

◇鋼鐵生產額(百萬噸)

| | 一九三〇年 | 一九三一年 | 一九三二年(預定) |
|---|---|---|---|
| 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英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獨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佛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世界生產額에對한사의比率 | 六%二 | 六%二 | 九%八 |

◇原油採取量

| | 一九三〇年 | 一九三一年 | 一九三二年(預定) |
|---|---|---|---|
| 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英 | — | — | — |
| 獨 | — | — | — |
| 佛 | — | — | — |
| 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世界生產額에對한사의比率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棉花消費量(千噸)

| | 一九三〇年 | 一九三一年 | 一九三二年(預定) |
|---|---|---|---|
| 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英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獨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佛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世界生產額에對한사의比率 | 二〇%六 | 九%九 | 二%〇 |

◇發電力(十億킬로時)

| | 一九三〇年 | 一九三一年 | 一九三二年(預定) |
|---|---|---|---|
| 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英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獨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佛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世界生產額에對한사의比率 | 二%八 | 三%五 | 七%一 |

우리는以上의數字로서 五個年計劃의結果 사베트의産業이 英米佛보다 어떠케 또는얼마나 超高速度로發展햇나를볼수잇다 더구나 今番恐慌으로因하야 各國의預定數字는 그아래로低下함을免치못하겟지만 恐慌을모르는 사베트聯盟은決코그럴리업스니 今年의實績으로말하면 사베트同盟이以上의比率을나타낼것이다 伯林景氣研究所에서는 一九二八、三一兩年度에잇서 主要各國의工業高가世界總生產額에對해서 占領한比率을發表하얏니 그發表에依하면 一九二八年에第五位를겨오占領하든 사베트聯邦이 一九三一年에와서 第二位로올라갓다

| | 一九二八年 | 一九三一年 |
|---|---|---|
| 米 | 四四、一% | 三一、八% |
| 사 | 四、七 | 一二、〇 |
| 英 | 八、五 | 一〇、〇 |
| 獨 | 一〇、五 | 七、九 |
| 佛 | 六、四 | 六、九 |
| 日 | 二、三 | 二、七 |
| 加奈陀 | 二、三 | 一、九 |
| 瑞典 | 〇、八 | 一、一 |

### 三、第二次五個年計劃의樹立

資本主義各國에는 恐慌의波濤가아득하얏을모든나 破産은破産을뒤이어생기고 大量生產의失業은大衆生活을極度로窮迫한다 그러한가온니 사베트聯邦는 第一次五個年計劃을完了하고 다시一九三三年으로부터 第二次五個年計劃의樹立을 發表하얏다 第二次計劃는이미第一次計劃完成의 機械工業가잇는러라 그成功이 疑心업는날이다 그內容을簡單히들어보자

(一九三二年現在에 比하야 一九三七年은)

1 機械製造工業 三乃至五倍
2 電力生産 百七十億킬로에서 千億킬로로
3 石炭採取 九千萬噸에서 二億五千萬噸으로
4 石油 二倍半乃至三倍
5 銑鐵 二倍乃至二倍半
6 鐵道 二萬五千乃至三萬킬로메터의新敷設
7 棉花亞麻生產 二倍
8 甛菜 三倍
9 穀物生產 十三億체트넬
01 個人的消費基準 三倍

이以外에도 賃銀所持者와總賃銀額 또는國營農場과集團農場等에 다각각그만한比例의增進이잇다 하나못해旱魃에對한爭까지도條目에들어잇다

### 四、教育

싸벳트聯邦에서는 教育에잇서 여간한努力을드리지안는다 一九二八年米國의 쓰르조아教育學者듀이(Dqewey)가싸벳트聯邦을視察한後 여긔對하야極口讚歎한바다 帝政露西亞時代의文字를 解得할者가 겨우全人口의 二五파ㅣ센트이든것인데 一九三一年度에와서 十歲以上의全人口 七〇%以上이 文字를解決하얏나 또帝政露西亞時代에 小中學의就學數는지오七百萬이든것인데 二千三百萬即三倍以上으로 그就學數가늘엇다 그뿐이아니라 浮浪兒不良少年 變質兒童等에對하야도特別한保護와教育을 베픈다며 그듀이印象의 一節을紹介한다 『孤兒園은 어느나라든지잇지만 이처럼幸福된兒童을본일은업다……이浮浪兒들의 흉폭한教育을 생각할때나가 거긔서어든結果에 感銘을禁치못한 露西亞民族에는보기드문才能이잇다 革命은 그貴重한才能을 發揮하기를許諾해잇고現在그것은 教師에依하야 利用된다는것을 確信한다』

### 五、學術

學術은 지금사베트聯邦보담더 尊重히녀기고 더獎勵하는곳이업나 一九三〇年사베트聯邦을 보고온 英國의부르조아科學者 크라우더(Crowther)도여긔對하야 證人으로 이슬수잇다까 論다른나라와 달니個人設立의 研究所나 또는個人의財産을 가지고 저個人혼자서 研究하는學者는 업는것이다 모두研究所는 國立이요 그研究所에 잇는學者들은 一定한俸給으로써生活을 保障하는것이다 모스코 電氣試驗所하나 設立에 一百五十萬폰드를드리고 地質研究에 五萬폰드의獎勵金을준다 應用植物學에는 年年三十萬폰드를 던진다고한다 그뿐이아니라 可能한 限度外지學者나技術家를優待한다 여긔크라우더의 니약이의두어節을引證한다

『俸給에對하야 科學者는 聯邦中 最高級의勞働者속에든다 重要한實驗所를管掌한一流科學者는 萬一그가希望한다면 一年約千二百폰드를바들수잇다……』

『技術家는 사베트從下의 最高級의勞働인것갓다 나는一年에約 千七百五十폰드밧는사람을맛낫다 二三人의露人鑛山技師는 一年二千五百폰드를밧는데 一二外國入技術家는 一年約三千五百폰드를준다는 事實을알앗나……』 高級勞働者의俸銀이政府大官의俸給보담만음으로高級勞働者云云

### 六、軍事

사베트聯邦에對하야 여러方面으로여러가지를말하고 시프나 별外制限된紙面에 가外워나다는것은모다갑어치우고軍事에對한것이나 暫間說明하겟다 一九二五年後사베트內에 사는사람은勿論 모다兵役에服할義務가잇지만戰鬪部隊는 構成해서武力的國防을 맛기는것은勞働階級에限한다 또兵士들에게는사베트主義에對한思想을 教育하야서 思想的으로外지完全 武士를만든다 現在陸軍海軍空軍이다잇스나 今海軍이泰靡하고 陸軍과空軍은谷資本主義國의强力的防衛로도侮視키어렵나 赤衛軍은 資本主義軍隊로하야금사베트同盟領土內에 一步라도侵入시키지 안할것이라고 보로시로프가 豪言한것도 오죽空虛한 壯談만은 아니다 一九三一年 陸軍兵力은 約五十六萬二千 空軍兵員 二萬八千 機關銃과毒瓦斯豫防嚴具等의配給은相當히完備。

## 外國學者의본 싸비엣트聯邦

### 佛前農相「셀레」

氏는『스테에』內閣의農商으로 今番 싸벳트聯盟을視察한後 巴里에 半官日刊紙『마땡』에繼續論文을揭載하기시작하얏다 그첫재로『셀레』氏에게 깁흔印象을준것은 싸벳트聯邦全體를通하야『建設熱』이充滿된것이엿다 『事實이시길수잇다 그러나 시련事實이라고 이것을意識的으로 파무더두는것은 조치못한일이다 露西亞革命을 回顧할때 그모든不美한點과不正當한것을 이질수는업나 露帝國의外債를 承認치안코 同盟諸國에 戰敗될것은 不斷하고 戰爭을 中止한것가튼일은 더구나우리가조케생각할수업는것이다 그럿타고아모리실치만 사실을일워이다 事實그대로를보고거긔對한對策을講究코자함이 내觀察旅行의目的이엿섯다 『싸벳트의實驗』을無視할때는발서지나가버렷다 우리는 朝野를擱置하고 그原因을確定식힐必要가잇다 우리는 그原因을確定하고 그結果를分析해보지안코는 싸벳트의革命的方法을非難하지말것이다 政治的 方法과經濟的見解가 우리의것과相反된다고 다른사람과모든關係를 斷絶함은不可한것이아닌가……』

### 앙리, 싸비쓰

佛國의大文藝術家『앙리 싸뷔가』莫斯科에서 大歡迎을바덧다 『싸뷔쓰』는 뿌어조아學者詩人『베어쓴』『쥬맹쿨리』『발러리』『롬이에』等에 對抗하야思想的鬪爭을猛烈히하고『쐬ー드』『써ー나드쇼ー』『쟝』等學者文藝家等과갓치 싸벳트聯邦과프로레타리아革命을爲하야 싸호는文藝家다 그는 歡迎會席上에서 아려와가티말하엿다

『漸漸더過去는 消滅되고新事物이迫到한다 受難과奴隷生活의錢湊가消滅되고잇다 사베트聯盟에서는 발서 이工場이世界의最大工場이니 이機械는全世界의第一이나 이施設은唯一無二한것이니 하는말이流行되기시작되엿간다 우리聯邦은人類의前衛로서行進하고잇다 『十月』의 指導者는 全世界프로레타리아에게約束햇든것을저바린것이업다 『思想을行動으로結晶식히 界의六分의一에社會主義的建設을實現하고잇고 남어지六分의五는 崩潰의暗黑을것가외간다……우리들는싸벳트聯邦을擁護하자!』

### 에코노미스트誌

國際的으로 指導的地位에잇고勢力을 가진英國 經濟雜誌 『에코노미스트』誌는 一九三二年十月十五日號로부터 三次나繼續하야 『露西亞諸現象』이라는 싸벳트聯邦에 對한繼續論文을揭載하엿다 特히五個年計劃에對하야는 그結果를 詳細히取扱하고 다음과가튼 總括的結論을내렷나

『計劃에完成을 爲하야 시작된펭포는 오직熟練이 繼續되고紀律과組織能力이 生產取益이나도록 充分히急速히 增加될때에만 繼續될것이다 이境遇가아마그러할것이다 이것이完成될때에는 人類는向上發展의階段에 한巨大한一步를前進할것이다』

### 앙드레씨ー드

佛國文豪『쐬ー드』氏는『新公論』에 아레와가티말하엿다 『카타스토르프는아마 避할수업슬것갓다……싸벳트聯邦이 우리生活의價値를抹殺할리는업슬것이다 貴重한個人의發展을助長할것이요 個人의價値는잘利用할것이다……國家가 各個人에게로부터 最善의活動을要求할에는 唯一無二한方法일것이다 『레닌』의思想은 只今外지抗拒하든歐洲各國에도 밝어지기시작하엿슬것이다 그러고恐佈들늣길것이다 그래도 이思想이得勝하욕拒否하고잇다것은 愚昧나……人類가變更되고 旣往社會基礎以外의 新基礎로變革될것을미지안는다 未來는 過去의再現이아닐것이다……만일共産主義가 成功하면 내게는 生의歡喜가업서질것이라함은 君의말이다 그러나 내게는 成功안될때 그러할것이다』

### 獨逸科學者들

獨逸科學者(化學者)一派『핏쓰』『클라게쓰』다이제강『피ー취』等이 싸베트聯邦의科學研究施設과 技術家待遇에對하야 賞讚하기를마지아넛나 『民衆과政府가 다 國民經濟의發展에對하는 化學의重要性을 깁히理解하는것은 놀날만한일이다 이러한現象은 獨逸에서 못보는것이다 싸벳트聯邦의學者는 生活難으로부터解放되고 一般民衆의援助와國家의物的及精神的擁護下에成功이 莫大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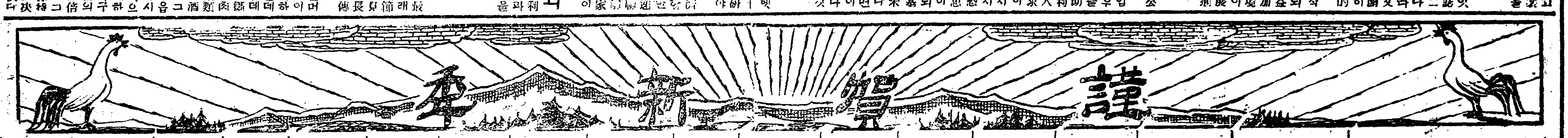
『클라게쓰』는말하되 『廣汎한農民大衆을 生産에利用하는同時에 이大衆의教育과 發展에對하야 나는놀나지안을수업섯나』

### 百歲長壽法

結婚은젊엇슬세

巴里의名醫『케니오ー』博士는最近百歲의誕辰을祝하엿다 그래서『케』博士의長壽의秘訣이『節制와運動』에잇는故도 그의意見은크게爲重해도조흘듯하다 長壽法에對하야 『케』博士의直傳은如左하다

『每朝每夕 나는나의身體를머리부터발끗가지 摩擦한다 이것은자리속에서말한다거려하는것이아니라 뵈란다가튼데에서熟心히하지아니하면쓸데업나 六十歲쯤부터特別히肉食을避하고 果實이나野菜類를넉넉히먹지안으면안된다 酒精類는한부로마시면틀린다 그러나 少量의酒는消化를도읍는데 葡萄酒에水를타서마시면조타 茶나커피도만히먹으면害毒이다 結婚은젊엇슬때하는것이조타 人間의骨格이구더지는때는二十歲인바動物의生命은普通그時期로부터五倍以上으로繼續할수잇는것이다 그런고로人間이百歲의壽를保持할수잇는것은生涯에잇고決코不可能이아니다』라고하엿다





安城

安城郡廳親睦會

朝鮮京畿道安城市 正屋百貨店 金順宗 電話六七 振替京城二三〇七九番

安城邑內 朝鮮料理 太平館 主 金喜瓊

安城市場 朝鮮料理 錦松館 主 洪吉善

平澤自動車會社 安城自動車會社 社長 市山直衛

安城郡安城面 事務所

株式會社 東一銀行 安城支店 安城郡安城面場基里七六ノ一

薇陽面事務所 面長 [illegible]

安城郡邑內 白城醫院

京城地方法院安城出張所 職員一同

安城司法代書人一同

京畿線安城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取引店 安城合同運送組合 電話五八番

安城郡一竹面注川里四六九 李思翊

安城邑內市場 綢緞布木 鳳憲商會

京畿道安城市場通 安城洋襪工場 主 李熙淳

安城邑內 鄭澈益

安城市場 永信商會 電話四七番

京畿道安城郡安城面東里 金城商會 主 金鍾喆 電話三六番

安城酒造株式會社 電話四六 五一番

安城公立普通學校

衡平社安城支局

安城鍮器製造株式會社

安城邑內 中央齒科醫院 院長 李應卨

京畿道安城驛前 三光運送部 黃學性

安城邑內 朝鮮料理 明月館 主 趙貞子

安城市場通 陶磁器金物洋燈硝子和紙販賣 昌元商店 主 文在元

京畿道安城郡市場通 綢緞布木各種洋品 太陽商會 主 李麟盛

京畿道安城市場通 綢緞布木商 宋應泰

安城市場 大昌商會

京畿道安城郡市場 各種鍮器製造販賣 白城鍮器商會 主 李永實

安城郡 金光面事務所

安城郡 寶蓋面事務所

京畿道安城市場 穀物竹場通 米穀鹽商 各種肥料 安俊鎔

安城郡安城面東里 三星精米所 主 俞瀅濬

安城市場 綢緞布木商 秦大弘商店

安城邑內 金物油類商 主 都錫洪

安城邑內 福壁樓 王春芝

京南線安城驛前 朝日屋洋服店 趙晨元

安城市場 商事株式會社 社長 金將弘

安城邑內 三昌商會

安城郡安城面東里 李成雨

安城市場 皮革商 片福同

安城 安城鍮器株式會社 社長 朴周秉

安城 城南電燈會社 專務取締役 朴春寅

安城邑 東亞印刷株式會社

安城市場 和洋雜貨染料類散賣 孫仁煥商店

安城市場 各種ゴム靴原鹽石油類賣商 黃泰淵

安城自轉車商會 主 崔敦

安城 長尾富士遭

安城 西田行四郎

安城市場 和陸物產類散賣 金斗煥商店

安城邑內 穀物商 安城商會

安城 淺田醇二

安城邑內 醫師 朴胤根 八達醫院

安城驛前市場 和洋雜貨賣藥類賣 鄭華永商店

京畿道安城邑市場 海陸物產委託販賣 彰信商會 主 崔相鏞

京南線安城驛前 米穀貿易外米穀 官製及各種肥料販賣業 合成商會 主 金鍾 電話三六番

京南線安城邑市場通 綢緞布木洋品布雜貨石油販賣 東興商店 主 金允瑞

京畿道安城郡邑內東里 東信商店 店主 李全龍

安城市場 和洋金物農具各種商 主 禹京玉

安城市場 綿布商 張瀅商店

安城市場 綢緞布木商 主 金斗鎭

安城市場 綢緞布木商 主 李應五

安城市場 綢緞布木商 主 崔聖弼

安城市場 和洋食料品及石油商 主 崔胤柱

安城郡安城面市場通 陶器金物類散賣商 朴魯俊商店

安城郡一竹面恒川里 農商組合

安城郡 一竹面職員一同

安城 鄭基昌

明月館 李錦仙

明月館 劉點紅

太平館 洪春心

太平館 朴錦玉

太平館 姜明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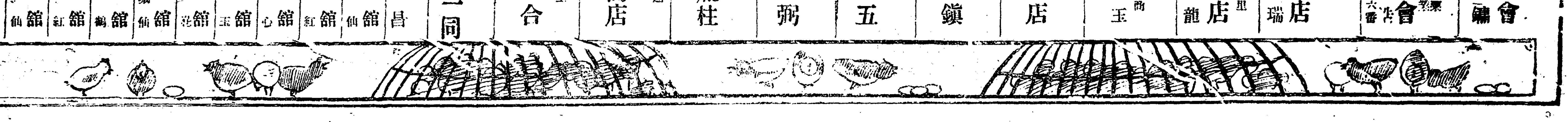
太平館 金碧城仙

太平館 李壽鶴

錦松館 朴蘭紅

錦松館 簡月仙

錦松館 鄭錦枝

## 文藝

# 文藝人의새해宣言 (二)

## 一九三三年의步武如此 (到着順)

### 文壇에對한 希望 二三

兪鎭午

압호로 朝鮮의文學을엇더케 쓰ㅇ려나갈것인가－그것에對한 「提案」이라느니보다도 希望몃가지를적어보면－

一、世上에서는 흔히 「文壇不振」이라고 떠드는듯하나나는何必그러케는 생각지안는다 첫재內容도업시 공연히 떡－날리승으로만떠드는것이「振興」이라면 그러한振興보다는 도리혀不振이낫고 둘재

**不振인것은** 文壇뿐이아니며 다른모든「擬」도다그러한가한다 다만이不振이라는뜻을 文學運動에參加하고잇는사람－所謂「文士」의努力不足을 의미하는것이라면 그것에對하야는 作家들이 어느程度責任을저야할것이다

一、作家－뿐아니라 評論家도또한 過去의無爲를벗어나 압흐로는精力的으로運動을 展開식혀야될것이다 첫재理論을確立하여야할것이다 文學運動의目標－「××地」文學의目標는××地××에잇는것을 똑똑히해야된다 둘재이目標를達하기위해가장科學的인 創作方法을획득해야한다 첫재이러한目標와 方法에忠實한作品을 나어야될것 이세가지는내가말하지안어도自明한일이다 그러나自明하것만은 從來이것이똑대로實行되지못하엿다

**이것을實行** 하기爲하야더욱첫재조건 即××지文學의目標를明確히하기爲하야 압흐로만흔努力이잇서야할것이다

一、文學의批判標準과 批判權威가確立되지못한것이原因이되여 從來너무나만흔作家가너무나速히大家가되엿다 그러나大家 근거가업는大家이기때문에너무나速히 沒落하엿다이러한早熟 早成 早老를막기爲하야作家는 不斷히努力을繼續하여야할것이다 外國文學의豊富한成果를攝取하며 모든新興반독藝術理論의內容을理解－克服하며 急激한社會의動向을認識하게觀察－體驗해야 될것이다 『쏘아스』『큰루－스트』『콕토－』等을愛讀하며 朝鮮의좌익作家의無智를비웃는

**『文學愛好者』의눈압**헤우리는 하로밧비그들의正體를폭로해주어야할것이다

一、一種의逃避라고 輕蔑할사람이 잇슬지도몰으나모든客觀的條件이 극도로不利한朝鮮에 잇서서는 正攻法以外에 側攻法도絕對로必要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우리는諷刺小說 探偵小說 또는그것도안되는때에는 페－소스小說이라도積極的으로生産해야된다 이것은반동作品의跳梁을 막기爲하야도 絕對必要한것이다 그럼으로이것은

**決코逃避가** 아니다 卽敗한兵卒『쉬베－크』나 『메스멘드』들은 逃避的이라고 볼으는사람은絕無할것이다

一、이諷刺小說等의提唱은特히劇에잇서서 더必要하다 劇은小說보다도 더困難한條件을 갓고잇기때문이다 이것을無視하고 억지로正攻法을維持하라면『三等水兵마르린』을上演하든것가튼 失敗를보게된다 이上演이失敗한것은 演出 演技의不足보다도 脚本自體의內容이 朝鮮사람과는 너무因緣이먼곳에原因이잇섯다고생각한다

**內容을바꿔** 앗긴『三等水兵마르린』과다른 反(略)을內容으로한諷刺劇－×××와의 關聯을 똑똑이나타내는諷刺劇이될신더效果的일것이다 그럼으로앞으로는 이러한 諷刺劇 喜劇 探偵劇等이 만히産出되어야할것이다

말하고싶흔것은 만히잇스나 紙數와時間이업서 이만둔나

### 海外－뉴스

#### 부린스톤大學生 三分一이苦學

獨立自治를自誇하는것은 米國大學만으로서부린스톤大學人事部學生職業紹介主事리챠－드워－아엘드氏로부터부린스톤大學總長代理에드워－드 덧엘－드氏에게提出한報告함에依하면六百七十二名의學生이各各職業을가지고잇서서 一九三一』『一九三二年度에이學生의 번돈이二十萬一千八百九十三弗에達한다 一人數는全校 學生의約三分의一에達하야一年間에百二十三名의增加를보히고잇다 이것도亦是不景氣를反映한한가지事實이라할수잇다 그런데學生이가지고잇는職業으로도 [illegible] 大學은硏究부터荷物運搬까지와 大多數의 [illegible] 은大學의食堂에서일하고잇는이더 가장技術을가진者는 [illegible] 의整理에從事하며 或은프로그람을 돌거나寫字生을하고 잇나쓰만사니라 學生의일은 各方面에 손이드너가 警備는 共同으로 여러가지장사를 하고잇다 例하면洋服店 洋服修繕 旅行案內所 寫眞店等等又上級學生은新入學生을爲한學校案內誌乃至週刊公報等의編輯發行에從事하고잇다 가장大衆的인것은食堂을經營하는者도잇다

### 겨울밤

尹崑崗

겨울밤거리 음산한 공긔속으로
아레너－가 운다
반달은 하날에어려붓고
바람은 썩나귀가튼나무가지를 흔들며
청아웃 합석채양이 덜컹!
공장안 寒暖計는零下十度나
숨을 쉰신 무쇠연통
비인하눌에 사웃대질 하고
멈－리 정거장 막차의고동이 쌕! 울엇다
져을 밤은 깁허만 가고
기름능잔업헤 늙은어머니란식하실젼
밧븐집허만가네 (完)

### 編輯者들의少量 作家生活의不安

李無影

昨年의 新聞雜誌送年號는입을가추어 一九三二年의朝鮮文壇을寂寞不振『沈滯』의 一言으로長嘆하고잇스나 나는그러케生覺지안는다 비록傑作으로推薦할만한 作品이업섯승은 事實이오 筆者또한 그것을容認할뿐더러 부끄러움을 禁치못한다 그러나나는不振이라고는生覺지안는다 도로혀 一九三二年만큼朝鮮文壇이 活氣를띄우기는年來에드믄일이라고까지생각하고십다

勿論 外國의그것에比한다면 遜色이 잇겟지만은十指를不過하는 朝鮮이雜誌－더욱이昨年에는 朝鮮中央兩新聞이半年以上을 休刊하엿슴에도 不拘하고 評論으로三十餘篇創作으로는無慮百篇의 만흔新作을보혀주엇다 그리고 一九三二年만큼 新人을 우리文壇에보내준해도 드믈것이다

그러면 이만한評論과創作을 낫혀준昨年의文壇에서 收穫이 얼마업승은무슨까닭일가! 問題는여기잇는것이다 年來로朝鮮文壇[illegible]만은 一九三二年에問題삼는것은 新聞雜誌엇슴에도不拘하고 왜不振하엿느냐는것이다 나는 누어서 배튼침이어데가서 떠러질것인지를 잘안다 알지만는 自我는懺悔하고同志들을激勵하는衷心으로 몃가지理由를說明해볼가하는것이다 그리한다면 自然新年에對한提議도이여서 順序되리라고밋기때문이다

**一、作家의努力不足**

統一的으로 朝鮮의作家들은 努力이不足하다 남달리苦悶하는백성들이면서도 그러키가업다 더욱이旣成作家가 그러타 不幸한白姓이면서도 比較的幸福된外國作家를보나도 自己國家에 滿足하는례가잇다－이것은同時에 朝鮮의作家들이무老한다는 意味도되거니와原因도되어잇다

**二、評家의缺如**

朝鮮에는 評家가업다 누구나하는말이지만은 評家가업다 獨善的自己陶醉에만 熱中하는『初입는評家』小說이원지도 몰으면서도 文名(오! 그것은 恥辱이다) 에팔리어 讒謗과中傷으로 一貫한『辱說評家』甚하면 先輩(語)威가 잇스나』을 알고뭉기는評家와 辱을팔어서 文名을 엇자는『狡猾한評家』－이러한評家들 除外하면 업다고 하여도 조흐나 辱說이란 評者－理論에 敗한者의 最後의 醜惡임을 그들은 몰은다 －달하서 創作評이업섯다

**三、文藝欄의無權威**

朝鮮新聞雜誌의 文藝欄은權威가업다 다시말하면 文藝欄編輯者가 八方美人인境遇가만코 甚하면 門外漢이 그實權(?)을잡고잇다 이것이 作者의努力에도 關聯되고 非作家의 跋扈와 旣成作家의 早老에도 影響된다

**四、文藝에對한社會人의沒理解**

一九三二年(!) 임에도 不拘하고 依然 文藝를 偏物取扱하는 社會人이잇다 某敎育家는 不必要論까지 提唱한다고 드랫스나 한말로하면 그들은 自由가무가 人生의全部인줄 아는모양이다

**五、低流作家의濫算**

三流 四流의 作家 本位의低級雜誌로 몰아단기며 春畫圖가튼詩 小說을쓰고 作家然하는 불상한人間을 濫算치못햇다 그보다도 어떤點의主幹의 誌面으로도그러지못할雜誌로서 그들의功名心을扶發한것－이것이社會人과文藝와의距離를遠遠케할것인상시프ㄱ

**六、카프의態度**

(小略)에對한 극진한誠意와 情熱로 손을잡그라는 同作者들의미울만큼 氣를쓰고 墮落시켜온것 眞正한 意味의(略)的(略)는 카프數(略)人의 統發力 死守로만는 成就되지못한다 넘우包容性이적엇다

**七、雜誌社의將來制限**

모는不利한 條件미테잇는朝鮮雜誌라고는 하지만은救濟의制限이甚한것 模倣을하려는사람은아니지만『改造』나『中央公論』은 二百餘枚까지 創作一篇에 提供한다 그것을枚下로五枚에서最高로 三十枚라는것은 넘우 甚하다 力作을엇으려면 적어도六七十枚는 必要로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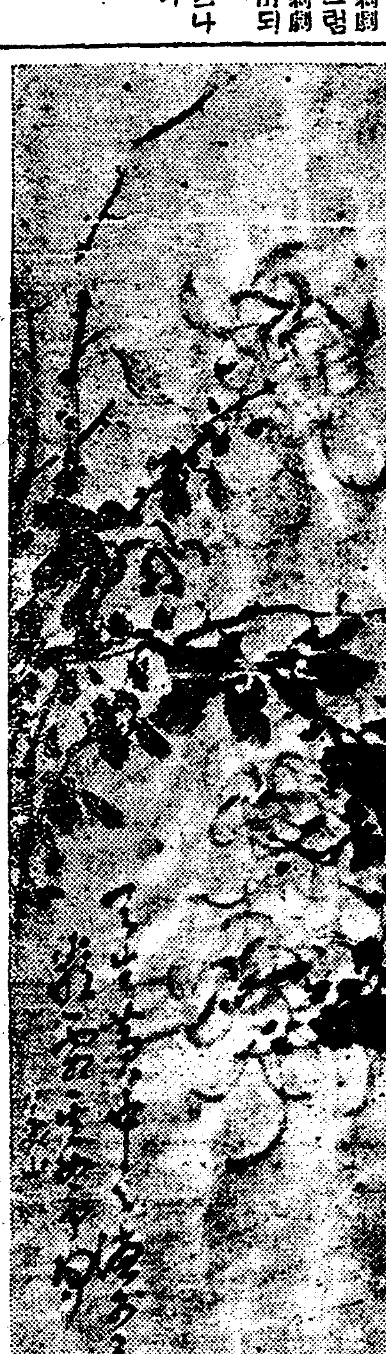
**八、作家와雜誌社**

三千部以上發行하는 雜誌社로서도 原稿料를支拂치안는것 甚하면 任意로改削 改題 中斷 發表延期等의非行 더욱이 原稿料도 支拂치안으면서 雜誌一篇의 斷案이 업는것

**九、作家의生活不安定**

雜誌記者들은 밥을먹어야살고 作家는 흙만파먹고 사는줄만아는것 原文가낫는 編輯者는 반드이 三日間만 굶어볼必要를늣긴다

(이것은 要求일지몰으나 金額의多少를勿論하고 文學賞이 하나쯤잇으면 여러가지意味로보아 조흘것도갓다나)



美山 黃庸河 氏 試筆

# 朝鮮現代文藝思潮論 (二)

『佳作』 柳壽春

朝鮮社會思潮의動向은一에도民族이오 二에도民族이엇다 곳말하자면「[illegible]」이制度로澎湃되엇든것이다 따라서朝鮮의文藝도 비록濃淡하나마民族意識을담은 自由主義思想의表現을보이엿든것이다

이제 新文藝運動이 걸어온 자최를보다면 녯날

**舊韓** 國時代에 李仁稙 李海朝 金敎濟氏等이 가장 初創的 또는 啓蒙的時代가잇섯고 그다음十餘年은 春園李光洙氏의獨舞臺이엇섯고 그다음己未以後에는 現今에大家然하게된 그분들이잇다 그런데 朝鮮의文藝思潮는웰혹어 發達되지아니하엿든만큼 春園에依하야浪漫主義가輸入되엇고 그다음自然主義文藝가 輸入되게된것이다

그러하야 一九二〇年代로부터一九二五年代까지는 거의自然主義全盛時代라고하기에 足한것이다

**新傾** 向派(뒤에無產派)가 一九二三年부터『開闢』誌에 發照하게되어 그것은오늘에잇서서 푸로레타리아文藝運動으로轉化하고 相當한基盤이 잡피어잇는것이다

그것은 곳朝鮮社會運動 그것이 民族主義에서 社會主義로 或은××主義로이러케轉換되는瞬間에 文藝에도그러한影響을받아 입게되엇든것이다 藝術은 時代의反映이라함과가티 朝鮮社會의發達現象은곳 文藝라는곳에 反映되어잇다그럼으로世界大戰以後 思想改造思想이 朝鮮에도反映하엿다는 것을否認할수업다 그라하야오는

**朝鮮** 의文藝는世界文藝思潮와거의가든步調로 進展되고 잇는것이事實이다

이제一九三三年代의 朝鮮은 大凡다음과가튼三部類에 槪觀할수잇다

### 三、世界文藝思潮와朝鮮文藝思潮

世界大戰以後에 共通된한개의思潮는 改造思想이엇다 그것은歐洲에잇서서 兩個의體胎兒를나엇나니 한개는 社會民主主義를基調로한獨逸이오 그다른한개는 共產主義에立脚한勞農露西亞이엇다 가튼變革은歐洲諸國에 直接影響되엇고 그다음極東에까지 影響하엿든것이다

이에朝鮮에도이러한傾向은相當히나타나서 以來十餘年동안에 民族主義를根幹으로한思想體系와 社會主義를

**基調** 로한思想體系가 並立하는데이르고 朝鮮文藝에도이와가른 兩個의體制는即時反映하게되엇든것이다

그러하야 吾人은現今文藝思潮에잇서서세個의 確然한思想體系를 잡어내게되엇스니그것은하나는民族主義이오 하나는 社會主義이오 또하나는社會主義同伴者派이다 그러하야以上 三者의分野를살펴보면다음과갓다

### (가)民族主義文藝思想

吾人은첫재로 民族主義를根幹으로하는 文藝運動을삽어낼수잇나니 그의가장著名한作者와作品과

**人物** 로는春園李光洙 시어넘金東仁 요한朱耀翰 岸曙金億 巴人金東煥 無涯梁柱東 諸氏를 들수잇는것이다

그러고 그들의作品으로는春園李光洙氏에잇서서는 主로小說을들수잇는바 가장두렷한存在로는『麻衣太子』『端宗哀史』『李舜臣』等等의 作品이한갈가티民族主義思想을 內包하고表現된것이다 말하서春園李光洙氏는 民族主義一派에서는膾炙되고謳歌되지마는 他方社會主義一派의文藝運動者의 攻擊의對象이되고잇는것도 속아자못할한개의事實인것이다

그다음시어던金東仁氏에게잇서서도 그러한

**亞流** 的地位는保存하고잇는것이나 最近에發表된『論介의還生』『아기네』『젊은그들』은 少步도 遲해볼수업는 民族主義를根幹으로하고 쓰여진것이라고볼수잇는것이다

以上의兩氏들 잠깐例로 들엇거니와그것을簡單하게 槪別的으로表示한다면

詩……요한 巴人 岸曙
小說……春園 시어던 春海 憑虛
評論……요한 無涯 赤羅山人
戲曲……白潮、露雀 朴勝喜

等等 諸氏를 들수잇는것이다 그들의作品은 한갈가티 民族主義에立脚하고 쓰여지는것으로서、이것은

**民衆** 에게 直接 間接으로影響하고잇는것이다 그러고 數만흔 民族主義的藝術傾向을 가진 文學靑年이 길너지고잇는것이다

# 朝鮮文藝思潮論 選後評 (下)

金八峯

結論에잇서서 그는諸派를통들어 寬大한품안에품으려하얏스나 民族主義文藝도 社會主義文藝도 同伴者流나 아나－키승이나모다가朝鮮民衆을現實의桎梏으로부터解脫하려고努力하는것이라하고 그모든것의存在가다조타는意味의말이 그것이다 君은

**朝鮮民衆** 이現實의桎梏으로부터 解脫케되려면 如何한方法에依함이가장確實한것인가하는問題에는 全然關係하지안햇다 나타나잇는現象은 모도다한가지目的에 集中되어잇는 有用한것이라는것이 그의結論이다

그리고 이러한態度는 果然科學者的態度일가? 나타나잇는 文藝思潮를 列擧하고 具體的으로그들의流派를 引證하고그것들의 主張을分析하고 이것을그依據하는바 現代社會의具體的動向에 歸納하고 나아가 그것을 評價하는것이應募者에게負擔된 全任務가 아니면안될것이엇다 그러함으로柳君은 이點에잇서서도重大한缺陷의責任을가지지아니할수업다이것이 第二로當選을考慮케한問題이오

○

다음으로는 同論文의 部分部分에 同一한 意味의 句節의 重複과 文章으로서 意味不通되는個所와 全혀無用의文句가잇서幼稚한곳等은選者가그것을削除 改竄

**改作을施** 한것이다 적어도評論을쓴다면 더구나文藝思潮論을쓴다면文章에만은 選者의注意를 끌지안케되어야正當할것이다 그러하건만 우리柳君에잇서서는 이러한遺感이잇섯다 이것이最後로君의作品으로하여금入選을考慮케한問題이오 同時에 以上三理由가君個人의作品을 다만選外佳作으로推薦하야써 潮謝를表함에 그치게된 根本이다

○

M W生의作品은 첫재 蒐集規定인八千字를 倍나超過하얏슬뿐아니라 叙述의 方法이 統一되어잇지못하고 簡單한論文中에서 浩瀚 內容을取扱해야할것임에不拘하고 無用한序說을三百年前부터 이르키어내엇스며 各其特定한流派에關한引例는該博하나 그것의分晳과批判을缺如하야 지나가다가인사한마듸하는式의

**稱讚과辱** 說의좌왁로 始終하야버린不愉快한結果만을招來하얏다 그러한까닭으로 初頭의長遠한序說을除去 壓縮하고 削除할部分은잘러버린後 이리저리얽어매어 規定에맛친다음 그러한作으로 發表하야 볼가하든選者最初의생각도三思함에 이르러서 單純抛棄하게된것이다 學藝部와協議하야 이러한選評을 붙이는까닭은 이러한選者의批評에 諒解가 잇기를바란다

### 희망의노래

權九玄

그이가 없어떤들
내이 곡조를 어이 지으리
그이가 없어떤들
내이 노래를 어이 불으리
그이가 없어떤들
나는 계집을 안고 술을 마실것이
심장에는 끓한 쉬가 숨고
이 봄은 싼울반 재人덤이에 누울것이
나의 가슴은 풀울은 봄 바다
희망에 넘치는 물결이 파도치련다
그 뛰라 날더라 커룸나 화며뇨다
이 마음은 한 백년 킹킹한 커 술일것을
구름 과人발을 헤처고 반작이는 별 하나
그는 날 기다리는 이의 눈물자 아니려뇨
달리련나 나는 커 별빗을 쫓아
끝없는 희망의 노래 불으며－

金海郡金海邑 金融株式會社 自動車部
社長 許萬鐘
支配人(金融部) 姜陽秀
支配人(自動車部) 鄭弼銖
書記 曹武煥
電話 三三番

海

金海郡 郡守 黃德純
財務主任 進鹿勝馬
庶務主任 萬代淸一
外各團體職員一同

金海郡金海邑 追間金海農場 支配人 崔瑗浩

金海郡金海邑 金海劇場 主 裴鳳乙 金武日 管理 金尙祜

金海郡鳴旨面中里 崔奭海 釀造場
金海郡菉山面美音里 安承太 釀造場
金海郡駕洛面竹林里 金成鶴 釀造場
金海郡酒村面泉谷里 曺鎔煥 釀造場
金海郡金海邑佛岩里 金英守 釀造場
金海郡上東面梅里 韓益東 釀造場
金海郡上東面大甘里 金鳳祚 釀造場
金海郡下東面酒中里 姜太璉 釀造場
金海郡進禮面松亭里 金奭均 釀造場
金海郡[illegible]面酒島里 金正植 釀造場
金海郡長有面茂溪里 李承秀 釀造場

金海郡金海邑長 牛島熊記外職員一同
金海郡二北面長 宋祺鶴外職員一同
金海郡駕洛面長 李鍾穆外職員一同
金海郡菉山面長 尹大龍外職員一同
金海郡下東面長 金炯敎外職員一同
金海郡進禮面長 宋世允外職員一同
金海郡生林面長 許[illegible]外職員一同
金海郡長有面長 徐慶坤外職員一同
金海郡上東面長 曺永煥外職員一同
金海郡酒村面長 李康舜外職員一同
金海郡鳴旨面長 文璣敏外職員一同

金海郡邑內 衡平社支部 金海共益組合 [illegible]

金海郡金海邑北內洞 土木請負業 具四鉉
金海郡菉山面松亭里 菉山病院 醫師 白一甲
金海郡駕洛面竹林里 丸金商店 金興浩 金仁守
金海郡金海邑佛岩里 仙岩渡船場 金聲漢
金海郡[illegible]面 砂防工事出張所 長友秀彦外職員一同
金海警察署長 武子東洲男
金海郡駕洛面竹林里 角一山林土地株式會社 金海管理所
金海郡金海邑 中華商會
金海郡金海邑 土木請負業 金敬文 電話一四番
金海郡金海邑 合同銀行支店 支配人 白南日
金海郡金海邑 金融組合 組合長 彬錫權 理事 無津呂豐次
金海郡金海邑 合同印刷所 電話一九番
金海郡金海邑 料理店 金海樓 [illegible]
金海郡金海邑 文治模
金海郡金海邑 料理店 常春館 [illegible]
金海郡金海邑二洞里 道評議員 李康濬
金海郡金海邑 金誠九商店 電話二六番

[illegible] 金性學
金海郡下東面酒中里 金欽培
金海郡金海邑 シンガ裁縫機械會社 主任 [illegible]
金海郡金海邑東上洞 孫千榮
金海郡金海邑 牧師 金萬一
金海郡金海邑北內洞 共立印刷所 電話二〇番
金海郡金海邑北內洞 全永奉
金海郡金海邑[illegible]谷里 朴孝炳
金海郡金海邑東上洞 康德允
金海郡金海邑三山里 醫師 朴斗仁
全義
京釜線全義驛前 蓬萊釀造場 朴鳳來
全義穀物商組合
京釜線全義驛前 金國堡
燕岐郡全東面長 權五泳
京釜線全義驛前 全義商會 韓正教
京釜線全義驛前 (武)運送店 郭武鎬
京釜線全義驛前 全義理髮館 高光玉
京釜線全義驛前 光明旅館 朴明順
穀物檢查所 全義出張所員一同

새해새노래에화답하자

……(寫眞은巡廻中의梨花女專合唱隊)……

# ◇◇ 미쓰朝鮮圓卓會 (續) ◇◇

## 衣·食·住

## 옷은실질적인것 단간사리에한달사십원 주택은신구절충이편해

### 먼저의식주의 간편화를하라

金炯元 조선 일반경제로 보아 더욱의식주의 간편화는 절대 필요한것인데 여기 대해서말슴해주시지오?

毛允淑 가정생활은주로한권체 생활이지오

安碩柱 조선녀자의 외복 이렴 우사치하드군요.

朴吉來 염색을 이즈음에 와서 조금벗늘른가 하니안 그래뵈지오

安碩柱 권에는 뵈치마로도 사려는데 하부다이에 「지리맨」가튼것을만히입으니……보기는좃치만 너무빗사서요

毛允淑 뵈가 조선사람에게 시간상경제상 불편합니다 더구나 자본수의가 발달된이때에 더구나 조선의생산품이 업는 조선서 조선것만을 입을수가 업겟지오! 하부다이「쎄루」등이 사치하기위해서 입는것은안이지오.

成大勳 를산장려 다령이 나옴니다그려! 요컨댄사치라는 것은 갑빗산것을 현대녀자들이만히입는다는게지오

朴吉來 조선것을 입겟다고 무녕옷만입다가 세루옷을 입엇드니 경제상시간상 편유리하든걸요

成大勳 요컨대 그러케 세루가튼실질적인것이야 의복 감으로조켓지만 넘우 갑빗사고실용적이 안인것만을 입으닛간 탈이지오!

### 어멈을안두고 손수합이자미

孫明男 만일처가 가정을 일운다면 옷가튼것도 그리사치를 안이하는동시에 옷이 더럽지 안토록 주방을개량해 보겟서요 그리고또주부는 어멈을두는것이 안되엇스니까 이것을 업새야겟서요! 저이들은 잘 먹고오히려 주인은 낫븐것을 주는때도 만흐닛가요! 안락을늣끼는때는 안이고 도자긔손으로 밥지어먹는것이 얼마나 조와요? 그리고 직업을가지는때는 할수업스리라고 봅니다만 직업을 부인이갓게되면 가정에는 충실치못하게 되니까 가정경제가 그리군색지안흐면 가정의단란을위하여 직업안가지는이 조켓서요

金炯元 여러가족이 한집에사는 것은어떠습니까?

李永愛 부부단위생활이조치요 만 부모가잇스면 모서야지요 금후는 자녀를 독립식히겟시만 지금우리가 부모를따로들수가업지안어요?

金炯元 인습적관렴을타파하기는곤란하나 지금여러분이 자긔가옴타고 하는것을 타파못하면엇더케합닛가?

李永愛 우리세대가되면실현되겟시요?

李應淑 가족제도가조치못한탓이니간요……

宋玉璇 그래요……

李應淑 낫븜니다……

### 어린애머리를 남편이빗기라

金炯元 만일집을가지신다고하면한간식이라도 따로따로잇서야겟시요? 이는보건(保健)문제로보아도 그러치만 그래야아츰이면 부인이 어린애머리도빗기고 남편의칼라도 차저주고……

李堯鳩 칼라를웨안해가차저주어요? 남자자신이하지요 一同(笑聲)

宋玉璇 자긔일는자긔가 해야지요……

毛允淑 어린애머리빗기는것을 남편에게 가르처주어서 식히는것도조켓시요(笑聲)

金炯元 옷은각각다두엇다 가자긔가입어야옹켓지요

孫明男 경제가넉넉해야다각처에두지요

毛允淑 부자집이라도교양업는 집은 더어수선하게 정돈이되지안엇든구면요

宋玉璇 가정주부교양여하에잇겟지요

金炯元 페물리용방법은

李永愛 그거야할수잇는대는잘 하겟지요 (이때事情으로徐明學氏退席)

## 월급을 주부에게맛겨라

## 긴치마는『외트래스』

### 녀자도두루막이를개량해입으면

### 외투는서울려 옷우색의로해

李堯鳩 말요 그러치안치요

孫明男 외투는 삼년입엇는데 더러워서 삼원늘드려 새루주의를하나 만드러 입엇는데 포켓트도업고 또동정도 더러지고해서 외투는또햇드니아모래도 편안해요

朴吉來 『포켓』이야 주되인들 못다나요?

金炯元 치마의장단은 어느것이조흘가요?

李堯鳩 그야 각자취미에잇것지요

李應淑 깁게입는것은 카페열만에 한하지안어요

金炯元 조선옷이흰것만만트니 이즈음은 색채잇는옷이 만흐니 이것이 조흔현상일가요?

金鎭海 첫재경제가되고또미가 잇스닛가 입는게조켓지오

李應淑 한창나히젊어슬때무색 옷을 안입으면 언제입어요?

毛允淑 남자들은무색옷입는것을 사치라고하지만 그런것은 안인것입니다

安碩柱 취미에하로입는게지오

孫明男 색채도 넘우 부화되동(附和雷同)으로남이입으니까 입는다는것은종자미가업서요

李應淑 유행도덥우심하니까어되……

金炯元 조선정조(情調)에맛는 의복감의색채가업슬가요?

孫明男 이것이라고할것이업는데요

(때는午後七時八分 食堂으로一同暫時退席)

## 幼稚園敎育에 當面한諸問題 (1)

崔瑨淳

××

幼兒敎育을 그場所와環境에 따러家庭과 幼稚園둘노난우어 볼수잇다 그런나이兩者의사이는떠터실수업는 密接한關係를 가지고잇다 그런데 나는여기서幼稚園을中心으로하고 이러나는 여러가지問題들斷片的으로써보려한다 더욱지난十一月末十二月初에 京城안에잇는幼稚園中[illegible]參觀하고 그에어든所感과 생각한바를적어보려한다

### (一)幼稚園敎育에 對한一般의誤解

幼稚園을 도라단이며保姆여러분 또父兄여러분에게 드른點을中心으로하야 다음몃가지問題를 맨드러생각하려한다

1 幼稚園은가르키는곳

幼稚園은 어린아이들이 가서工夫하는곳으로 생각하고 子女는 幼稚園에 보내는사람이 적지아니하다 그러하야 될수잇는대로 唱歌도만히배우고 表情遊戲가튼것도 만히배우고 또手工가튼것도만히 맨드는法을배우고 또算術도배우고『アイウエオ』도배워야 그幼稚園이 조흔幼稚園이라생각한다 또어린아이가 幼稚園에갓다오면 그배운것을다시한번식식혀보고 그대로질하면그것이참신통하야 동리집으로도라단이며 자랑하는분까지잇다 이와가튼생각을 가진사람이敎育에對하야 相當한理解를가지며 또社會的으로도 相當한知識階級에 屬한분가온대도 적지안타

더욱幼稚園을經營하는사람가온데도 이와가튼생각을가지고잇는이도잇나니 이와가튼생각을 가지고잇는것이 또無理가아닌斷도多少잇다 過去에잇서敎育이라하면덥허노코 아이들에게만히가르키여 만히알도록하면그것이第一이라하는 생각과또現代에잇서早敎育을主張하니될수잇는내로 일즉부터만흔知識을가르키는것이 조흔줄만생각하는것이 이와가튼생각을갓게하지안는가한다 幼兒敎育의根本精神이 幼兒心身그個性의健全한發展과成長에 잇는것은敎育學者의說을빌며說明하지 안이할시라도누구나是認하는바이다 또幼兒의心身과個性에無理한負擔과指導는 오히려조치못한結果와影響을잇치는것도 再論을餘地가업시明確한事實이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知的訓練이全然히 不必要한것은아니다 그러나從來의方法과가티 文字와言語를知的訓練의唯一의目標로삼어 幼兒에게無理한負擔과指導를식히는것은幼兒의心身發育의階段과 幼兒敎育의指導順序를보르는沒常識한所致이다 幼稚園時代의知的訓練은文字의學習에잇지안이하고 幼兒의生活을通하야 다시발하면言語와遊戲作業等實際經驗을通하야 正確한觀察과判斷의힘을길너주는데잇나니 文字의學習은普通學校에드러가서 시작하는것이幼兒의心身發育上適當하다 金鑑로幼稚園은 가르키는곳이안이요 어린아이들이生活하는곳노는곳으로생각하야이生活과 노는것을通하야 幼稚園敎育의 모던敎育을하는것이 特徵이라면特徵이다 程度를넘어가르킨다면 不自然히 가는마음과態度를갓게되고 어린아이는벌서無理가생기고 幼稚園敎育의참된것을이저버리게된다 그럼으로 幼稚園은 어린아이들을 가장자미잇게 快活하게길너兒童의個性과 心身의發育을 健全히發育시키면 그使命은다한줄밋는다

◇……새봄빗아래속삭이는이쳐의아가씨

## 金君과나와 그의안해 (二)

李箕永

『뻑광이……허허……』

『아니뻑광이?』

나는자긔도 모르게 흥분된 목소리로 부르지젓다

『그래 뻑광이……허허……그동안자미가 엇더시요?』

나는비로소 그게누구인줄을 알고깜작 놀내지 안을수업섯다

『아ㅣ이게 웬일이요? 대관절!……』

나는한동안말문이막히고인 몸이쥐르르하게마치감전(感電)이된것가튼 이상한감촉을늣기엇다

내가 이러케감격해하는것도 그리 무리는아니엿다 웨그러냐하면 빽광이란 은사람이안니라 재작년봄에이러난 (中略)의 ×모인김○○이란사람이요 그는 그당시에 [illegible]서 경제망을돌파하고 멀니해외로 亡命하엿다는것은그에신문보도로도잇섯거니와 나는반이모다그런줄만알고잇섯다 그런데이제몰연히 그가이때에나타나서내게까지 전화를 건너는것는 여간이상하고 놀나운일이 안니엿나 그적(蹤跡)이안이면안되엿나

나는 그전부터 김군을 잘알엇다 아니 그를 알기전부터 나는 그가너년간 해외에서활동하엿다는 이력을 드럿더니만큼 그를 사괴게 된뒤로는 나의가장 경외(敬畏)하는선배의한사람이엇다

그가그러한 이몸이드니만큼 그가 내게 전화한것도 반드시 심상치안는 일이라는것을 나는 직각적으로 짐작할수가 잇섯다 그런생각은 나를한편으로 웃슬한마음을 나게하면서도 다시 한편으로는 엇잔지칭기는 생각이 들게도하엿다

나는우선그가 지금 어듸잇는가? 무러보앗다 그래도 나는그가시내(市內)에는드러오지안코 어느시외(市外)에서 전화를 건출아떳는데 의외에도 그는문안에 드러와잇슴을 대답이말하며 내가용무(用務)를못기권에자긔를 오날저녁에 꼭차저와달나고 지금잇는 번지(番地)를 아르켜준다

나는 그의청을 거절일수업섯다 우선우정으로 한가워서도만나볼러인대 무슨일인지는 몰르지마는그가먼저꼭만나자는데야 못한다고는 할수업섯다

그래서 나는 그가부탁하는대로 저녁에만나기를 약속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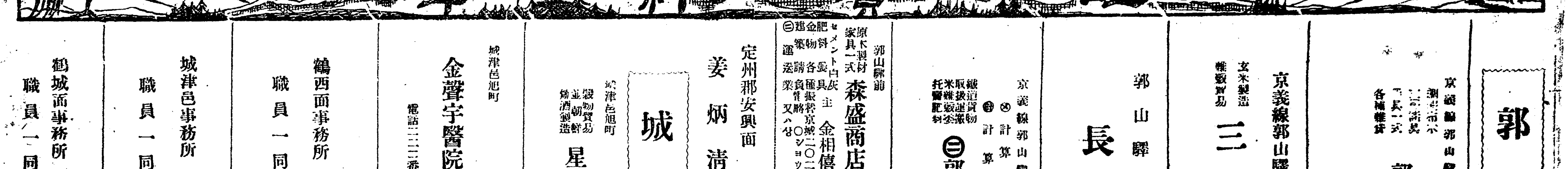
『아홉시까지……그럼 꼭와야해요—안오면안돼 거긔는……○○동 산기슭으로올나오자면……알지?……그래……거긔서 왼손편으로 석겨드러가는……마루턱에……올치그래……거긔에 서양사람회사의 ○○간판이 부텃소……알겟소?……올치—그안으로 쑥—드러와요……그러면 왼손편으로 정원(庭園)을도러서…외딴채가 잇지요 거긔 서양개한마리를 쇠사슬로잡아맨…… 개가지줄테니 바로그압으로와서 나를차저요…… 그러면될겟지……하하—』

『어듸 으슬으슬하고 무서워서 차저가겟소……하하—』

『괜찬아— 개를 잡아매두엇스닛가!』

하고 나는 전화긔를 노앗다 나는엇잔지 긔분이 긴장되엿다 지금까지 나의잔잔한생활에 별안간돌멩이를 던진것처럼파동을이르켯다

나는 그길로 바로집을향하엿다 여름밤의 아홉시라면저녁먹기가 밧부지 안은가 그런데 시계는벌서 일곱시반이넘엇다 나는집으로줄다름질을첫다





郭山

京義線郭山驛前 測量器具 三長一式 各種雜貨 郭山協同組合 振替京城一九二九六番 私書函六號 電話(クワ)又ハ(?)

京義線郭山驛前 玄米製造 雜穀貿易 三共商會

郭山驛前 長生館

京義線郭山驛前 ㊉計算部加盟 ⊕計算加盟 鐵道貨物取扱運搬 米穀貿易 託肥料 ㊂郭山荷主組合運送店 振替京城二〇二〇〇 電話〇二又ハ二

京義線郭山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郭山代行營業所

郭山驛前 原木製材 家具一式 セメント白灰 肥料各種農具 金物 建築請負 ㊂運送業 森盛商店 主 金相僖 振替京城二〇二〇八 電略ショウ又ハ상

定州郡安興面 姜炳淸

定州郡觀舟面 金瀅樂

京義線郭山驛前 定山醫院 醫師 姜學龍

城津

城津邑旭町 穀物貿易 並朝鮮燒酒製造 星泉釀酒合名會社 電話一一三番

城津邑旭町 金聲宇醫院 電話二二二番

鶴西面事務所 職員一同

城津邑事務所 職員一同

鶴城面事務所 職員一同

鶴東面事務所 職員一同

鶴中面事務所 職員一同

鶴上面事務所 職員一同

城津邑旭町 昌盛商店

城津邑旭町 雜貨卸商 東亞商店 電話一四八番

城津邑本町 邑議員 金在洙

城津印刷所 韓晋基 電話二二九番

城津邑本町 中央釀酒合名會社

城津邑旭町 金水商店

鶴中面臨溟金融組合 理事 鄭元鳳

臨溟郵便所 所長 齋藤義雄

鶴東面防洞 靑丘釀酒組合

鶴中面臨溟市 中鉉濬

鶴上面城興酒造所 主 崔浚弼

鶴東水利組合

城津邑本町 雜貨商 朴敬述

鶴南面日新洞 金遠檜

鶴南面事務所 職員一同

鶴南日新金融組合 馬膺復

新幕

開城電氣株式會社新幕支店

黃海道瑞興郡禾回面事務所職員一同

京義線新幕驛前 鐵道貨物取扱運搬 穀物貿易倉庫營業 中興運輸組 代表者 李炳燦 電話二二番

京義線新幕驛前 合資會社 新谷自動車部 電話一九番

京義線新幕驛前 司法代書人 郭李周

京義線新幕驛前 內外國自轉車販賣及修繕 各種時計 眼鏡貴金屬 新成商店 主 朴吉桓

新幕郵便所 職員一同

京義線新幕 綢緞布木雜貨 商共榮商店 主 崔昌永 振替京城一〇五八九番

朝鮮京義線新幕本町 和洋雜貨 文房具 運動具 各種洋服 春水堂 主 李用澤

黃海道瑞興郡禾回面新幕里 官鹽賣捌新幕組合 電話一二番 同二一番 同二五番

京義線新幕驛前 各種菓子 內外菓實 鷄卵貿易 海陸物産 穀物其他 柳信商店

開原

特産貿易業 精粟精米業 信益商會 文鳳德 長途電話三七二番 第二工場 慶福街 電話五二七番 支店 四平街 開信商會 電話長二五二番

特産貿易 土地經營業 三益棧 鄭晃極 金翊星

特産物貿易及精米精粟業 開原公司

朝鮮料理 萬歲樓 金永鳳

特産貿易業 精粟業 朝鮮商會

棉花業 栢水商店

特産貿易業 委託賣買 東盛商會 電話二八〇番

布木雜貨 委託販賣 義信商會

特産貿易業 委託賣買 大同公司 金在奎

朝鮮料理 開元亭 金鼎烈

冷麵及下宿業 朝鮮旅館 李尙龍

特産貿易 精白米業 東泰合精米所

特産貿易 精白米業 同益精米所

一般代書業 李根洽代書所

布木雜貨 委託賣買 韓日商店 朴基活

昌道

綢緞布木和洋雜貨 共信商會 主 金允燮

金化郡縣里 盧周鎬

金化郡通口面縣里 咸德一

金化郡縣里 金壽鉉

金化郡通口面縣里 穀物貿易商 李泰洙

金化郡通口面縣里 綢緞布木和洋雜貨 萬貨商店 主 宋千萬

昌道醫院 分醫 高洪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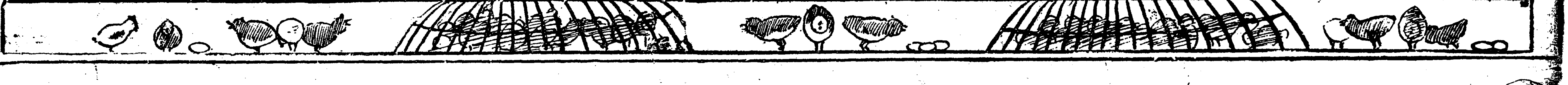
金化郡昌道里 砂糖麥粉雜穀貿易商 吉永製菓商店

金剛山電鐵線昌道驛前 ◇昌道運輸合同組

昌道釀酒組合

金化郡昌道里 新舊雜貨 雜穀貿易商 韓昶燮商店

金化郡昌道里 綢緞布木 和洋雜貨 文明順商店

# 謹賀新年

## 長城

長城驛前 綢緞布木 三光商會 金泓權 電話五九番

長城郡長城面白鷄里 長城郡 普通尋常學校長一同

李瑩錄

長城郡廳 各團體職員一同 電話四番

長城郡森溪面社倉市 荷物自動車業 白獜圭

長城驛前 料理屋 秋月館

長城驛前 朴鍾善荷物自動車部

長城郡森溪面社倉里 辛東葉

長城驛前 長城米穀商組合

長城驛前 閔大熺

長城驛前 金相弼 電話二七番

長城驛前 湖南銀行長城支店 電話三八番

長城驛前 料理店 明月館

長城驛前 長城酒造株式會社 電話六五番

長城驛前 公醫 仙頭達

長城郡長城面鈴泉里 長城麴子會社 代表者 金奎烒

長城本町二丁目 友本雜貨店 友本留吉

長城驛前 南昌堂寫眞館 荷物自動車部 李宗燁 李棋九

長城郡北下面 釀造元 金相熙

北下面事務所職員一同

北上面事務所職員一同

北二面事務所職員一同

北一面事務所職員一同

西三面事務所職員一同

珍原面事務所職員一同

森溪面事務所職員一同

森西面事務所職員一同

南面事務所職員一同

東化面事務所職員一同

黃龍面事務所職員一同

長城面事務所職員一同 電三六番

長城郡森溪面社倉市 醸造場 柳德烈

長城郡北二面四街里 沈貳涉

長城郡北上面在里 金相益

長城驛前 湖城農場 主 文在喆

長城驛前 合名會社 群星 長城農場

長城驛前 米穀仲介商 ⊖湖南運送店 主任 朴鶴桂 電話二一番

## 井邑

長城郡森溪面社倉市 臥遊 李鍾淵

長城郡 林鍾華

井邑郡廳 電話四番

井邑金曜會 邑內里一二三番

井邑自動車株式會社 電話本社一七三・二三二番

禾湖里 熊本農場

井邑職員一同

一也醫院 醫師 韓明洙

井州邑水城里 司法代書人 朴昌基

井邑水城里秋山座前 梅香理髮館 主 金光三

井邑水城里 黃文圭

井邑土木管區事務所

德興商會 主 李弼秀

井州邑水城里 大昌旅館 主 宋在學

井州邑水城里秋山座左便 雪濃湯 醬飲食 京城館 主 李長官

井州邑市基里 雪濃湯 醬飲食 新昌館 主 朴梅月

井州邑市基里 李秉俊

井州邑市基里 荷物自動車部 主 姜在根

井邑驛前 和洋雜貨 貿易各種 東日商店 主 金玩吉

湖南線井邑驛前 荷物自動車部 主 韓石崇 電話一二七番

新泰仁 李熙晃

新泰仁 朴桀求

新泰仁 朴升求

古阜 殷在西

井邑郡淨土面花山里 李鍾[illegible]

井邑郡瓮東面飛鳳里 姜喆鎬

井邑郡七寶面詩山里 金宗文

井邑郡德川面優德里 崔鳳烈

井邑市基里 文炳麟

德川公普校

所聲面普化里 殷允吉

古阜 殷東吉

井邑水城里 殷南燮

井邑產業組合 振替京城九〇四三番

井邑郡古阜 殷成雨

古阜水利組合

永元水利組合

井州邑水城里 中央洋服店 主 朴甘泳

所聲公普校 校長 加藤與之

井邑郡井州邑市基里 穀物商會 主 李秉奎 電話一〇九番

明月館 主 李得仲

新泰仁 金錦東

井邑公立農校

井邑公普校

井邑小學校

井邑驛前 ㊀東亞運輸組 主 金鶴九

井邑 柳秉烈

興陽面 面長 金元敏

面長 林暢周

面長 柳德烈

面長 李寶

面長 金道元

面長 鄭鐘麒

職員會

古阜公普校 職員一同

古阜面職員一同

所聲面事務所

井邑 一山印刷所 主 宋洙烈 電話二九番

東洋醫院 醫師 金兌根

井邑醫院 醫師 車敬三

## 高興

高興郡廳

各種產業團體 電話四番

高興面事務所職員一同 電話二九番

豆原面事務所職員一同

浦項面事務所職員一同

錦山面事務所職員一同

大西面事務所職員一同

小鹿島慈惠醫院職員一同

高興邑內 前田農場 電話三〇番

高興消防組 組頭 西濱榮三郎 電話七番

高興邑內 申常休 電話一三番

高興醫院 趙炳龍 電話一一番

高興邑內 司法代書人 李相膺 電話三八番

蒼濟醫院 龐天慶 電話九番

高興旅館 小川嘉壽太 電話二五番

高興邑內 鄭俊植

高興邑內 朝日樓 張桀玉

高興邑內 枷光明製菓所

高興邑內 高屋洋服店 시에론레코-드特約店

錦山面事務所 面長 張南搏

高興邑內 南鍾基商店

貨物乘合自動車 高興自動車部 東亞旅館 電話二五番

高興印刷所 宋允燮 電話四〇番

高興金融組合 理事 平田誠次郎 電話六番

道化面事務所 面長 李相鍊

## 梁山

高興二八 醸造場 申泰休 申午休 電話三六番

大西面事務所 面長 宋基哲

豐陽面事務所 面長 鄭永圭

道陽面事務所 面長 申乃雨

東江面事務所 面長 宋源燮

過驛面事務所 面長 申暢雨

梁山邑 嚴柱洪

梁山自動車組合 電話梁山四番

梁山水利組合 職員一同

上北面職員一同

熊上面職員一同

上北面大石里 朴珉洵

東面石山 金炳斗

東面石山 李喆濤

東面石山 金順益

勿禁驛前 鄭尙龍

梁山教育會

梁山郡廳

梁山警察署

梁山郵便所長 大井胆

專賣局梁山販賣所 所長 高斗東

梁山金融組合

[illegible]組合

梁山面於田里 佐佐木利助

道陽面道德里 金根鍾釀造場

道陽面官里 金栢雨

浦頭面吉頭里 申壬休

熊上金融組合 理事 高木善一

豆原面 韓相基酒造場

三山面竹島 李炳奎

朝鮮瓦斯電氣會社 梁山出張所 主任 孫明憲

梁山邑 三上熊太郎

梁山 面長 李世鍾

上西面 面長 金正圭 會計 金台根 書記 張道昊 梁承敦 李成雨 崔商南 技手 沈相龍

上北石溪 司法代書人 金原俊

梁山邑 司法代書人 李德雨

梁山邑 司法代書人 曺秉協

梁山邑 司法代書人 林基台

勿禁驛前 司法代書人 鄭斗永

梁山酒造場 金藍尙

## 春川

酒造場 安永遠

石山酒造場 李義澤

左耳酒造場 金柄濃

石溪酒造場 金永洙

豐川酒造場 鄭貞奎

院洞酒造場 裵彬

由山酒造場 李圭穆

梁山水利組合 金鍾潔

梁山邑 回生堂藥房

梁山洋服店 李松鶴

勿禁驛前 各種油 製造販賣 申德七

梁山水利組合 機械技士 金道彥 機關士 金明鉉

新基精米所 朴尙律

石溪精米所 梁柄河

朝鮮料理 支那料理 永樂亭 妓生 金瓊蘭 金桂花 禹桂玉

明月館 主 高敬伯

梁山自動車部前 良州旅館 主 安戊生

春川商工會

春川貞明女學校 實業科 普通科 校長 愛道時

江原道金融組合聯合會

春川邑 春光醫院 公醫 崔學云

春川電氣會社 社長 山中友太郎

春川郡廳

春川 殖產銀行支店 支店長 佐佐木恭

春川土木組合

春川邑 黃潤秀

春川郡西下面斗院里 金忠植

春川郡南山面事務所 面長 李承基 李鍾仁 李景林

春川金融組合

春川邑本町 かふへ アルプス

春川郡南面事務所 面長 權得相 鄭萬和

春川郡南山公立普通學校 [illegible]圭昌

# 明日 (37)

崔獨鵑作 安夕影畵

망년회 (忘年會) 5

『웨 그러나?』

신철이는 이러케 대답을하며 천천이 거러온다

『어서 어서 급히 뛰여오게 여기에 대사변이 생기엇네』

그의첫적과는 딴판으로 어되까지나 서두르는 병섭의태도가 우스워서 순경이는 도라서서 혼자웃는다

『대사변이라니?』

그들의압헤 다다른 신철이는 거기에 잇는 순경이의 존재는 전연 무시하는드시 병섭에게로 향하야섯다 신사가숙녀를 대하는 또는 청년이령양(令孃)을 대하는 경우에대개는 남자편으로부터 허리를굽히며 무의미한 인사도하고 필요치안은 말도 거러보는것이언마는 순경을대하는 신철에게는 그것이업다

『순경이가 자네를 맛나려고 이러케 나와섯는것이 이게 대사변이아니고 무엇인가?』

순경이는 그엄청나게 긔탄업시 내놋는 병섭의말에 적이 놀라지 안을수업섯다

『실업슨 사람 갓트니……』

신철이는 빙그레 웃고 대답하는것이엇스나 순경이는쌤에서 불이인다

『멀정한사람을 실업시 맨드네그려 실업기는 내가 웨실업서 사실대로 전하는충실한사람을……그러치 안으나 순경아……』

『아이 옵바도……』

순경이는 어둠속에서 병섭에게 눈을 흘기엇다 그러나 차라리 자긔로써 말하지 안으면 안될것을 이러케 로골적으로 말해주는 병섭의 존재가 필요한듯도 하엿다

『신군 사실 원세 참말이야 순경이는 자네에게 대하야 권보도 청다면 아홉사한구절 삼십오권이면 넉넉히 표현할수잇는 자긔의사를 발표하기위하야 그얼마나 주저하고 번거러운절차를밟고 또계획을 세우고 잇는지를 자네는 모르겟지……』

『흥그게 무슨잠꼬대갓흔 소린가수다스레느러놋는자네말을아라먹들 못하겟네그려』

신철이는쌀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모르는 모양이엇다 순경이도 그옵바가 무슨소리를하려고 쓰려내이는서문인지를몰라서 장차 신철에게던질그의 대답을 드르려하엿다

『그러치 안은가 글세 만일멀니서 권보도써 한다면『나는 당신을 사랑하오』의아홉자면넉넉하고만일천보가압가워서 좀덜드리고십거든요사히흔히하는 일본가나로『ワタシアナタ アイシテオルノヨ』하고 썻스면 삼십권이면 넉넉할쎄 아닌가그럿걸 이러케 억개를나란히하고는 자긔의의사를 엇더케표현할지 몰나서 가슴이부질업시 군청거리고 조바심을하고 얼골이 붉엇다희엿다 야단法치고정심하면설지안은 눈물도 흘리고또좀심하면 죽는숭내까지도 내이려들고 또좀잘못하면아조죽어버리기까지도 하고……하하하 그러치안어』

말을맛친 병섭이 자신이 먼저 웃자 순경이와신철이도날아우섯다

세사람이 다갓치 소리를처서 우섯다

길나라케 류창하게 주서섬기는 마치 희극배우의 독백갓흔 병섭의말에는 웃고만내여버리지못할 무슨 진리가숨어잇는것갓치 순경에게는생각되여서 우승웃해 다시정색을하고 자긔를 도라보지안을수업섯다

『그런줄 몰랏드니 자네가 련애에잇서서도 상당히 조예가 깁흡세그려·철학이 뚝뚝듯는 진리가 숨어잇는데 그래 어느틈에 그러케 연구를햇는가 허허 아마체험이잇는모양이지……』

신철이는 병섭의억개를툭친다

『체험으로써 사물을판단하는것은 범재(凡才)가할일이고 나가튼 천재는 추리(推理)로써사물의핵심을아러내이는법이라네 나는참말로숫총각이지 어림업네……』

『그걸 누가 엇더케 보증하나?』

『나의 고독이 증명하지그럼자 갓치 쓸쓸한 나의생활이 보증할터이지……』

병섭이의 얼굴에는호려지잇든우슴의 한조각도 차자볼수업시 사라저 버리고 그야말로쓸쓸한빗출 띄인다

『이건 쎈치멘탈리즘일세 그려 우리로써 맛당이 청산해버리지 안으면아니될……』

신철의 반박에

『아참 그랫는가 그렛나면 실수이니 취소야취소 엇쨋든 우리들은 량성(兩性)생활에 잇서서 업슬수업는필요한 연애라는것을 하기는해야겟지마는 그것도지금까지에 하여오는그런봉건적인정서(情緖)의유희래서는안될단말이야새로운길을여러야한단말이야 그러치안어……』

이때에 그들의 뒤로부터 멋개의 말소리가 홋허저 넘어온나

## 우슴거리

### 우리남편은 안그린댓서요

【佳作】 朴 雅 月

甲女『우리남편은 요전에자긔의방탕하얏든것을후회하고다시안그린댓서』

乙女『그거밋을수잇나 우리남편도그러케방탕하게도라단이더니 어떤날은 다시안그런다고다짐을두것지 그런데 웬걸한달쯤지내드니 도로 맛찬가지가되든데』

甲女『안이야 우리남편은요전팀송일에 날보고 그랫스니까절너도안심이지』

乙女『……』

### 一、바로그대로

市內積善洞六七의二 【佳作】 李 白 露

男『당신은世上에서 제일아름답고영리하신녀성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요』

女『선생님별거다아섯서요 아이붓그러워……』

男『?』『?』

### 二、체면모르는어린애

『나는 너만쯤에는 너와가치거짓말은하잔엇단다』

『그럼아즈머니는 어느때부터거짓말하기시작햇수유?』

『?』『?』

### 三、不招待

동무『이애 너웨영순이는오늘招待하지안햇니?』

女主人『저 철호씨가그애를꼭시려해서그랫시——』

동무『그럼 헤영이는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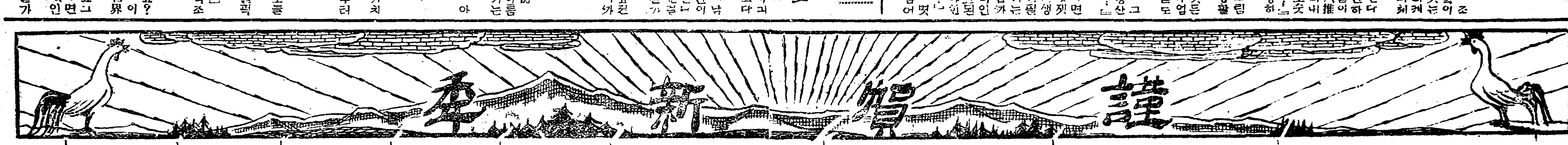
女主人『그애는철호씨가 꼭조아해서……』

### 四、新探險

점은안해『또어딜 나가세요? 이년전에 저보고한말승은 이즈섯나요 당신은 내의全世界라고……』

남편『아이엇기는 웨이저요그럿치만사람이란이년만지나면돼넓은 地理를 발게되는것인데……』

새世界를發見하려고探險을가오





## 光州

光州邑 玄俊鎬 電話二六六番

光州邑 全南精米所 主任 孫鍾彩 總務 金容成 電話一三一番

光州邑 光州金曜會

光州邑 私立光州普學校 設立者 崔善鎭 電話七三五番

光州邑楊林町 楊波農場 電話二五一番

光州邑黃金町 朝鮮料理 和洋料理 春木庵 電話三〇一番

光州邑社町 朴圭海

土木建築請負 金奉述 光州邑大正町二一二番地

光州邑明治町 光陽旅館 主 李光陽 電話六二七番

光州邑 孫祐彩

光州邑 中央醫院 院長 金興悅 電話三二二番

光州邑楊林町一六一 車萬能丸本舖 明眼散 口府散 大興堂藥舖 製造者 車載國 振替京城一四八三一番

光州邑 池應鉉 電話一三一番

光州邑明治町 春園寫眞館 電話六三〇番

光州邑 無名氏

全南光州明治町四丁目 齒科專門 鄭東鎭齒科醫院 齒科醫師 鄭東鎭

光州邑南町 玄德信醫院 電話四五五番

全南光州本町五丁目 南鮮藥業株式會社 電話四二五番

光州邑本町四丁目 南昌商會 主 沈德善 電話二五〇番

光州邑明治町 辯護士 徐光尙 電話二三九番

光州邑本町五丁目 三山堂藥房 長電話六一一番 振替京城九一一番

光州湖南銀行 專務取締役 金信錫 自宅電話二三四番

光州邑旭町 崔錫休 電話三〇三番

光州邑本町三丁目 光城洋靴店 主 徐漢權

光州邑須奇屋町 辯護士 金膺模 電話三六六番

光州邑明治町 辯護士 金在千 電話六二一番

光州邑黃金町 瑞石醫院 院長 崔泳旭 電話七〇七番

光州邑明治町 辯護士 宋和植 電話五〇五番

光州邑明治町 朴奉柱

光州邑明治町四丁目 朴琪柱

光州邑本町 綢緞布木 沈相燁商店

光州本町四丁目三七 和洋雜貨 東洋商會 主 程海根

光州邑錦町 李漢昌

光州邑本町三丁目 光信洋靴店 主 趙季圭

光州邑本町四丁目 大山堂印房 電話四一九番

光州本町三丁目 機械商 銀杏商店 電話一四二番

光州邑錦町 尹錫晋

光州邑南町三三 壽南局 全祥琜

光州邑本町四丁目 光山고무商會

全南光州明治町四丁目 司法代書人 李必仲 電話五三二番

光州邑本町四丁目 林鶴雲

## 晋州

晋州實業春秋會

晋州郡水晶町 晋州釀造合資會社

晋州郡晋州邑東鳳町 晋州麯子製造販賣組合

晋州邑上鳳町一〇三八 河萬僕

晋州郡大谷面職員一同 姜炳岐

平活面貴州里 鄭泰彧

晋州郡京町 綢緞布木商 具仁會商店

晋州郡大谷面雪梅里 姜炳觀

晋州郡智水面勝內里 許萬正

晋州邑內 鄭台範

晋州郡大谷面公立普通學校 宋在根

晋州郡大谷面事務所 徐聖基

晋州郡智水面勝內里 孝服許治九

晋州郡智水面事務所 面長 成泰珩

晋州邑 徐相弼

## 庫底

庫底港 合名會社 赤羽精米部 赤羽釀造部 電話一八番·二四番

通川面芳洞 劉錫堯

通川邑內 五月會

庫底港 通川精米所 電話一七番

庫底港仲町 庫底印刷所 主 朴商鳳

庫底港仲町 春城商店

庫底港 河村梅吉

庫底港 司法代書 石田秀藏

庫底郵便所 土屋政芳

通川面芳洞 劉載坤

庫底代行營業所 電話三二番

通川金融組合 庫底支所 電話一五番

庫底港本町 卞村製作所 主 崔應寬

庫底港仲町 通運酒造所

庫底港本町 廣信商店 主 李陞哲

## 陽德

東陽郵便所長 金達澧

陽德郡大倫面長 朴陽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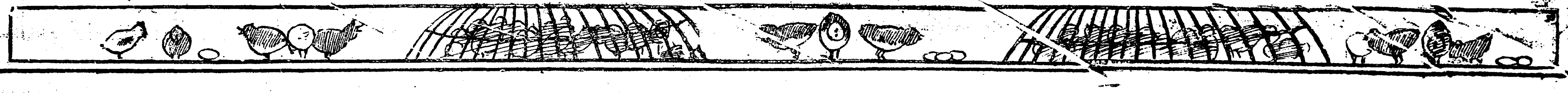
東陽面警察官駐在所 酒井健 山田元德 盧熙俊

東陽面事務所 孫道厚

平倉公立普通學校

陽德郡廳

平南陽德邑內 各官公署職員一同 各學校職員一同 各種團體職員一同

◇어린이날에勇躍하는少年들

## 봄빛과발마추어서 (二)

# 時代思潮에딸아 躍進하는少年運動

### 조선이가진귀여운새힘 軍呼맞처步步前進

거대한괴물(怪物)! 지구(地球)는간단업시 그위대한구체(球體)를 움즉이어서일회전(一週轉)을 마치고 그대로곳간밭의 틈입시다시 일천구백삼십삼년의 새희권을 게시하야 그속에 담겨잇는 모든인류(人類)에게 새광명(光明)과새환희(歡喜)를 던져주엇다 이신광(新光)을 마지한인간들은과거의오뇌(懊惱)를늘펼첩어던지고 신생(新生)을 향하야 다시약진을 시작할때 그희망은 장래가멀고긴 소년(少年)에게 만흔권도되 위대한가치를 발견될것이다 조선의싹이며 조선의새생명으로써 지금까지봇도드고 커나온 천소년운동의 그동안발버온자최를 이해머리에서 다시차저보고 압흐로나아갈질을 바라보기로하자

### 구습을벗고나선 조선의소년운동

조선에서소년운동(少年運動)은 다른모든운동과가티 일천구백십구년이후에 그발생을 차즐수잇다 지금까지 수백년동안 완전히 어른의예속물(隸屬物)로써 그생장성육짓밟피어오든 조선소년들이 자긔의성장(成長)을위하야 그가치를찻고 그권위를세우며 리익을위하야의식적으로운동을이르키기는이해긔미(己未)년전후 진주(晉州)광주(光州)안변(安邊)등시들비롯하야단체가생긴것으로써 시작된다 니어서각지에서천복호은교양을위한목적으로움도든이운동이일천구백이십사년봄에 와서 서울에서소년운동협회(少年運動協會)라는비상설긔관이생기고여긔서 주최하야 이해오월일일조선에서 처음어린이날이 개최되어 임반조선사회에 소년운동에대한 큰관심을 가지게하얏다

### 자연성장에서 의식적운동에

그이듬해 일천구백이십오년에 경성에서 이운동의리론가지도자각유지등이모이어오월회(五月會)라는긔관을조직하고 지금까지의 자연성장의이운동을낭시대사조(時代思潮)에빗추어 어린싹우러의식적으로지도할필요가잇다하야지금까지에나아오던키를돌이어방향전환(方向轉換)을하고 이케 누리왕조선소년운동은 지게되엇다일천구백이십칠년에 협회(協會)와오월회(五月會)가자진해체도 조선소년련합회(朝鮮少年聯合會)를조직그다음해 일천구백이십팔년에 소년운동을 더욱확대강화하기위하야 조선소년총련맹(朝鮮少年總聯盟)을조직하엿고

### 어린이의날은 오월첫일요로

해마다 조선소년을 위하야만장의긔념으로하는 「어린이날」을 오월첫일요일로 변경시행하게되엇다 이해에다시 경성소년련맹(京城少年聯盟)이조직되어 조선에 소년운동의색리가깁히박히엇다 한엽해 소년운동의왕성을따라당시조선에소년군(少年軍)운동이이러나 단체적훈련과자주적정신을 함양하엿다 이와가티여러단계를 지나서 커나온소년운동은 앞으로도 더욱건실히나아갈것이니

### 귀여운새싹을 북도드고키우자

조선의아름다운새싹이며귀여운새희망인 이들소년들은또그운동을 닥처온새해에 밝게힘잇게빗처온봄빛에 군호와발을 맛추어 성(誠)과협력(協力)을 다하야 북도드고 키우고 다시약진(躍進)비약(飛躍)케하자!

# 治水는一龍이나 再逢春의癸酉一年

### 閏五月로麥嶺遲遲가걱정 定休日만키로는豐年

◇……임신(壬申)이가고계유(癸酉)가오는틈을 밤사이에 사람의생활이 특별이 달나지는것은아니다 그러나 절서(節序)가 박귀는만치 그만한변동이 업슬수도업는것이오 녯날에도 일일지계는새벽에 잇고(一日之計在於晨) 일년지계는봄에잇다(一年之計在於春) 고하엿슴으로누구나해가 밧귀는때에는 감상이닐나시는법이다 그러나 사람사람의계획을 여기서 될할수도업는일이오우리저레의엇더한진로를여기서 의론할수도 업는일이다 ◇……엇잿든 또한해는왓나 이한해가 우리를얼마나 울니고얼마나 웃길는지는 알수업는일이다 다시말하면 개인으로나사회로나 계유신년의 년운(年運)은참으로 예단하기가 곤난한것이다 미신적사상을 가젓거나칭미금한이는 무당판수들 차저서길흉화복을 물어보는이도 잇슬는지 모르나 이러한일은벌서새시대의 새사람으로서 단연이취치아니할일이오 우리는 맛당히나해가 자긔의힘으로 자긔의운명을 개척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운명개척에대한이야기는 이만하여두고 그러면금년절후는엇더한가 력서(曆書)를떠들어보면 개권벽두에 립춘(立春)절이잇고 마지막에 또립춘절이잇다 일년에 재봉춘은 절후상으로 업는일이 아니지만은 양시에 주린누리들로서는 무엇보다도 반가운소식이라 아니할수업다 그다음금년에는윤오월이들로서 음력으로는윤년인데 가마츰 보리고개(麥嶺)이라 춘궁을위하야서는 걱욱이걱정되는일이라 할것이오 그다음이십사절후는 비나이케나 일반임으로 말할필요가업스나 일룡치수(一龍治水)하엿슨즉 비가적게올는지만히올는지 농가를위하야서는 이것도궁금한일의 하나이다 ◇……그다음에는 공무하는 사람이나 월급쟁이들을 위하야 노는날이 엇더케 되는가를 헤어보는것도 노상무의미한일은 아니다 일월일일이일요일임은 원래가노는때이니까 문케가 아니오 이박게도 일월공일이나흘이 월에는 노는날하로 공일나흘 삼월에도 노는날하로 공일나흘 사월에는 노는날하로 공일닷새인데 이십구일삼십일이 겹허놓게되엿고 오륙월에는 공일이네번식 칠월에는다섯번 팔월에는 네번 구월에는 공일이 네번이나 이십삼사일이겹허놓게되얏나 십월에는 노는날하루 공일나흘 십일월에는 노는날하로 공일나흘 섯달에는 공일닷새에 이십사오량일 또겹허놓게되얏다 일년을 통해보면 노는날과공일이합하야 륙십사일이나되고 세번식 련하야 노는날이잇슴은 월급 생활자의 휴양을위하야서는매우유리한해라고할수잇다

### 覺皇寺成道紀念

도라오는음력섯달초파일은 석가세존의 성도하신날이라하야 시내 수송동각황사(覺皇寺)에서는오는팔일오전 열시부터 불교의식을 거행하고 밤에는 성도에대한설교가잇고 밤곰시부터는 음악과무용과 동화가잇스리라는데 동화를 출연할강사는아래와갓다한다 ▲金泰治氏 ▲丁鳳九氏 ▲金一葉氏

## 갑배담한化氣煙

# 通川煙草代 每年八萬圓

### 열세곳보통학교비가 공중으로날나갓다고

【庫底】강원도통천군(江原道通川郡)에서지난륙칠년간 에순천이 연기로화하야버린 연초소비액을 조사하야보면 금십칠만오천구백 여원이라 하는업다 청년수자를보이고잇다는바 일년간의연초대금이가젓스면보통학교십삼교는 넉넉히 유지할만한 다액이라고한다

# 新春과발마추어 婦人의黎明運動

### 통천의부인사십명이단결 첫事業으로迷信打破

【庫底】통천군순령면보통리(通川郡碧養面寶通里)에서는주부사십여명이 단합하야 명칭보통리주부회(寶通里主婦會)라하고 창립첫사업으로미신의행사를 일체히 철폐하는일방 재래의생활케도(生活制度)를개선(改善)하야 근검절약을 할권만안이라 부인야학(婦人夜學)을설치하고 문맹퇴치에 노력하며 공동작업(共用作業)과부업려행을힘써실현중이라는바 이놀나운 소식을들은남반은 나날이 피폐하야가는현실에잇서서 가장모범적 부회라하며칭송이자자하다한다

# 檢查苛酷으로 米穀出廻激減

### 정미업자는현미제조중지 永同精米勞働者恐惶

【永同】충북영동군의금년신미(현미)출회는초가을부터지금까지 영동역에서 수송한종표수가불과칠백표라는 극소한수차를내엿다는바작년십일월중에는일만이천칠백이십구표의다량이출회엇승에 비하야 아조여지업는현상을 초치하엿나 이와가티현미의 수출이격감된 원인을조사하건대 무엇보다도 당국의검사가 너무나 가혹한관계로시내에잇는 여러현미업자들은 현미를케작하면 파는족족 불합석이되여서 불소한손해만 보게됨으로 현미케작는 권업폐지를하고벼를 무역하야 그대로외지에이송하는 관계라고하는바 이에따라서 곡물상들의 타격도적지안흘뿐아니라 오륙개소의현미업자에게 로동력을팔아서 그날그날의 생활을 지속하여가든 수백명의로동자들도 로동력을팔길이업서 비참한 정경에싸잇다는데 전에보지못하든 가혹한 검사로인하야 각방면에 대한 리격을준다하야 일반의비난이자못놉다고한다

# 芙江穀商도受難

### 人夫들도困難莫甚

【芙江】충북부강(忠北芙江)에는요새에 미곡검사가 국영이되어검사로인한 타격이 심함으로근일에는 타내시를 못함으로인부들은 그날그날을 버러먹는사람들이생활난에막심하다고한다. 그내용을듯건대 검사불당하다는것인데 벳천그만하여도산사능을부난히 낫은검사가지금은 오능낫기도 극난이라하야 일반곡상측에서는 대단한고통을늣기고잇다한다

# 二千組合員負債 勿驚!六十萬圓

### 농민조합원일인백사십일원 상인조합원일인칠백팔십원 江陵兩金組貸付狀況

【江陵】농민을조합원으로한 강릉금융조합의 대부상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조합원일천칠백오십칠인에 대부금총액은 이십사만팔천오백구원으로조합원 일인당부채가 백 사십이원이며 상공업자를 상대로한 명주금융조합(溟洲)은 조합 원사백오십이인에 대부금총액삼십오만 삼천칠백오원인바 조합원 일인당부채가칠백팔십삼원이되는곡이라한다

# 五老里金組도 每人當百四十圓

【興南】함남함주군하기천면오로리(五老里)에 잇는 오로리금융조합에 나타난 십월월말통게(統計)를보면 조합원 일천삼백명에총대부금이팔만원이라는데이것을 조합원에 분배하면일인당(一人當)평균약일백사십원이나되는데 피폐한농촌의 현재경제상태로는관상할길이묘연하다한다

## 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 各種競技開催豫定

### 體育데이開催를準備中

中央基督教青年會 體育部에서는年中行事로 各種競技大會를 開催하야 斯界에多大한貢獻이 잇든바 今年에는[體育데이]를 擧行할計劃을세우고 그準備를 奔忙中이라한다

그리고 今年中에開催할各種競技大會의 豫定[푸로그람]은 다음과갓다

▲三月 第二回全朝鮮籠球自由投擲技大會
▲四月 第六回全朝鮮卓球選手權大會
▲五月 第六回全朝鮮力技大會
▲五月 第六回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
▲六月 第六回全朝鮮씨름大會
▲六月 第六回全朝鮮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
▲九月 第八回全朝鮮中等學校籠球選手權大會
▲九月 第五回全朝鮮專門學校籠球選手權大會
▲九月 第九回全朝鮮團體柔道大會
▲十月 第三回全朝鮮器械體操大會
▲十一月 第七回籠球聯盟戰
▲第一回 少年籠球聯盟戰(未定)
▲第一回朝鮮基督教青年會體育討議(未定)
▲保健體操講習會(隨時)
▲體育講演會(隨時)

## 比島選手와對戰 徐廷權君惜敗

### [사크라멘트]에서

【사크라멘트(加州)聯合十二月二十九日發】 朝鮮이나흔天才的拳鬪選手 徐廷權君(一一三封度)은二十八日 [사크라멘트]에서比島選手[스돔·몬타나]君과十回戰을行하야 結局判定으로徐廷權君惜敗하얏다

當日徐君은 最初부터猛烈한攻勢를取하얏스나 [몬타나]君은 巧妙히이를逃하야 攻勢의殆半을 無效케한結果으로 奇勝을得한것이다

## 柔道聯合會加入團 冒寒練習開始

### 今二日새벽五時에

朝鮮柔道聯合會加入團體의中央基督教青年會柔道部를비롯하야 ▲光州保健俱樂部柔道部▲仁川武道館▲平澤武道館▲松都光武館▲龍井武道館▲朝鮮武道館▲朝鮮研武館等 全朝鮮各地道場에서 柔道冒寒練習을 今二日새벽五時부터 一齊히開始하얏다한다 同練習은二十一日까지繼續할터인바 이로써 朝鮮柔道聯合會로서 各團體에 協同團結의精神을修練시키는첫거름이될것이다

그런데 安城과 水原兩地에서는 道場整理中으로 當分間中止하게되얏다한다

## 講武館冒寒練習

### 三日부터三週日間

市內樂園洞에잇는 朝鮮總氏經營의講武館에서는 明三日부터 二十三日까지三週日間(日曜日도不休) 每朝六時로七時半까지 柔道冒寒練習을擧行할터이다

今年에는 冒寒練習뿐아니라 柔道修養과 人格에對한 講話와 柔道技術의 理論과 實地即施技의方法과 機會를 主로 教授하는同時에 準備運動으로 丁抹體操와 筋肉運動으로鐵啞鈴을教授할外에 一週一回式競走練習으로奬忠壇과 南山等地를走廻할豫定이라한다

그리고 新年度新入生을二日부터募集하기로되얏다한다

## 大豫학키一勝

日本帝大학키聯盟主催第四回日本高等學校학키大會第一日의第一回戰 京城大豫對三高試合은 十二月三十日午後二時부터京大運動場에서 國井主審下에開始하야大豫는前後半에各一點式奪取한結果二對零으로 大豫一勝하다

## 濱松商工優勝

東京大阪兩工大主催日本全國商工蹴球大會濱松(關東)對名古屋(關西) 의試合은十二月三十日午後二時六分부터大江山工大球場에서櫻甲主審下에 濱松先蹴으로開始하야 [그라운드]의[컨듸손]이不良하야兩軍亂闘를演하다가 攻守에모다優勢를支持한前半의優勝校濱松은 前半에二點 後半에三點을奪取한結果連勝의榮冠을獲得하얏다

## 臼田君惜敗

【호놀루루聯合十二月二十九日發】 日人拳鬪選手臼田金太郎君(一三九封度)은 本日[호놀루루]에서比島選手렄쉬·바스코君과 六回戰을行하야判定으로惜敗하얏다

## 라듸오

### 一月三日順序

午前一一時五五分 正午時報 今日順序演奏
午後〇時五分 氣象通報
同〇時二〇分 바요린獨奏 郭正淳
一、쏘나타[一番 長調]…헨델作 피아노伴奏 郭 夫人
아다지오 알레그로 라르겟토 알레그로
二、[敍情舞曲]…드보르작作品十五番
同〇時五〇分 (A)우승노리
同二時二〇分 (B)運動競技 大阪市外園運動場에서中繼 早大對同志社라구비試合狀況
同六時〇分 兒童時間(第三夜) 滋谷 小波
同六時二五分 連續倡劇調第二席 丁正烈 三國誌中[南屏山祭風] 鼓手 韓成俊
同七時〇分 亠쏘翌日順序演表
同七時三〇分 (A)浪花節
同八時〇分 (B)人形淨瑠璃

### 二日夜間順序

午後六時〇分 (A)兒童時間(第二夜)
同六時二五分 連續倡劇調第一席 丁正烈 鼓手韓成俊
同七時〇分 亠쏘翌日順序發表
同七時三〇分 (A)映畫解說 生駒雷遊
同八時〇分 (A)淸元
同八時三〇分 (A)獨唱
同九時〇分 (A)카두다朗吟
同九時三〇分 (A)時報繼續氣象通報

### 바요린獨奏 午後六時 郭正淳

곽정순군은방금연희전문학생으로독ᆞ쏘부인께해서시도를바닷나 일즉부터자주악단에나타나만흔찬사를바닷거니와근자에 그의연구는 점점농숙하여가고잇다[헨델]은고전파에속하는아악장으로 유아하고 장엄한것이 독석이다[드보르작]은보헤미야의악장으로 근대적미묘한 선율을 그려내는이다

## 光陽에海苔豊作

【光陽】전남광양군(全南光陽郡)은해태(海苔)의산지로 전선에유명하야 례년이십만원내지삼십만원의 산액을 보게되는데금년에는 특별이긔후가 조흔관계로칠년이내에처음되는대풍작이라한다

## 네거리

▲전남강진(全南康津)서는가튼처지에서 갓은고생을 하는 ▲머슴살이로동자우홀몸이 서로 손을붓삽고 닐어나 사생을 갓치하자는의미로결의형제(結義兄弟)를매즌후피차생활향상을 도모한다고 ▲이인이합심에기리단금(二人合心其利斷金)이라하얏는데▲구인이합심이면 산이라도 빼일터▲형식적회합보나 골육의 의를붓치는것은 결실미가잇서 ▲신년에들니는장쾌한소식!단결는힘!약자의무긔는오직이것뿐

## 天氣豫報

고긔압은중국내몽(內蒙)으로부터조선을지나 일본본방에퍼젓는데남조선해안은흐리고그타일반은천긔가좃타긔온은어제아츰보다조곰놉핫스며명일은대체로천긔가좃타

晴一時曇

昨日 最高 〇、一度一 最低 〇、一〇度八 正午 一、二度


# 謹賀新年

咸平

鶴橋職員一同

孫佛面事務所 職員一同

羅山面職員一同

咸平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平郡廳一同
咸平面事務所職員一同
鶴橋面事務所職員一同
孫佛面事務所職員一同
羅山面事務所職員一同

咸平郡公立普通學校一同

咸平警察署一同

价川

价川十五日會

平南价川本町 价川百貨店 電話長一一番 振替城城二〇三七五番

滿浦線价川驛前 中央運輸交計加盟店 荷主運輸組 電話一一番 振替京城一六八六一番

价川鐵道株式會社 電話長四番

平安自動車商會 价川支店 電話長五番

价川面事務所 面長 林觀道 外職員一同

中西面事務所 面長 洪昌鳳 外職員一同

价川郡北面 面長 李京根 外職員一同

平南价川邑內 中國料理元祖 德盛樓 趙炳逵

平南价川驛前通 平壤麵屋 電話二九番

价川驛前 土木請負業 太田組 電話二二番

价川郡釀造組合 金漢永 劉榮基 金膠淼 金鼎甸

平南价川邑內 价川郡農民共生組合

平南价川邑內 自轉車及附屬品販賣 貴金屬 榮輪商會 主 劉炳杰

价川驛前 ㊂三成運送部 店主 李榮爽 電話長八番 振替京城一八七九二番

平南价川邑內 洋品雜貨食料品 進興商店 電話長六番 振替京城一七二四番

平南价川邑內 和洋金物陶磁器商 吉川金物支店 主 李京濟

平南价川邑內 朝陽醫院 院長 金秉周

价川郡朝陽面 東山醫院 公醫 玉東賢

价川郡朝陽面 面長 崔昌鎬 外職員一同

价川郡中南面 李寅翰 外職員一同

价川郡外東面 面長 金景洛 外職員一同

价川北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朝陽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無盡臺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中西公立普通學校 綱川幸八

鳳鳴郵便所 福田博吉

价川無盡駐在所 早田誠

价川邑內 李銀錫(一名水狗)

軍隅消防組

杆城

高城郡杆城面上里四五九 李源伯

杆城金融組合

杆城南一醫院 南基夏

杆城面 職員一同

高城郡杆城面下里 司法代書人 李基商

高城郡杆城市 謙豫誠

梧垈面 職員一同

縣內面 職員一同

吉州

吉州館 覓幸之助 電話一二番

江野村齒科醫院 江野村重雄

吉州郡英北面營基洞 東金融組合

吉州專賣局販賣所 光永界

吉州邑內 太陽堂印刷所

吉州邑西門外 吉雄時計店一同

吉州西門外 吉州職工印刷部一同

吉州驛前 ㊉商工運輸組 電話二九番

吉州驛前(邑) ㊀日出運送店 盧必永 電話一六番

吉州鐵道病院 林炳日

吉州醫院 玄昌燕

吉州 宇野重一

吉州郡農會

吉州金融組合

吉州邑梅月樓 尹明夏